

은 세상에 전쟁과 각종 재해로 고통받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크신 오로팔로 그들을 끝까지 붙드시고, 구원의 손길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진정한 예배자들이 서 있는 모든 예배의 자리마다 온전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길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팬데믹 이후 사역, “관계”에 “집중” 해야 한다!

처치리더십.컴, 루이스 센터가 연구한 ‘2023년 5가지 목회 트렌드 소개

루이스 센터(Lewis Center for Church Leadership) 스태프인 덕 포(Doug Powe), 앤 미셸(Ann Michel) 및 제시카 안쉬츠(Jessica Anschutz)는 교회 지도자들이 2023년에 새신자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창의적인 사역을 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다섯 가지 트렌드를 나눈다. 이러한 트렌드에 주의를 기울이면 올 한해 사역을 실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올해가 시작되면서 루이스 리더십 센터는 평신도와 협력하며 연구하면서 2023년 사역에 영향을 다섯 가지 주요 트렌드를 발견했다. 2022년 초에 언급했듯이 새로운 사역 패턴은 여전히 진

화하고 있으며 예배 참석률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았다. 하이브리드 사역(대면과 온라인)은 계속해서 중요하다. 관계 쌓기는 계속해서 사역의 우선순위이다. 이러한 트렌드는 교회 재정과 직원 고용에 영향을 미친다. 2023년에 새신자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창의적인 사역을 개발할 때 이러한 트렌드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한마디로, 핵심은 신앙 공동체가 그들을 돌보고 그들이 속해 있다고 느끼도록 관계를 의도적으로 쌓는 것이다(5 Trends Impacting Church Leadership for 2023).

대면 출석률은 팬데믹 이전 보다 계속 낮을 것이다.

코로나-19 대유행은 기존의 예배 참석률 감소를 가속했다. 2022 팬데믹 예배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10명 중 8명은 팬데믹 기간 동안 교회 출석률이 감소했다고 답했으며, 응답자 10명 중 약 6명은 교회 출석률이 팬데믹 이전보다 계속 낮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팬데믹 이후 세계에서 예배 참석률 향상 웨비나에서 러벳 웨임스(Lovett Weems)는 “예배 참석의 시작점은 팬데믹 이전의 숫자가 아니라 현재 참석하는 숫자입니다.”라고 말했다. 팬데믹 이전의 참석 숫자로 돌아가는 것에 연연하지 않고 현재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창의적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의미 있는 하이브리드 예배를 제공하는 것 외에도, 지역 사회에서 교회가 선교 그룹을 양성하여 새로운 사람들에게 다가갈 방법을 모색하라.

하이브리드(대면과 온라인) 예배가 여전히 필요하다.

많은 교회 지도자가 대면 예배의 시대로 돌아가기를 갈망하지만 그런 시대는 지났다. 가



장 많은 사람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예배와 사역에 대한 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2023년이 시작되면서 우리는 호흡기 바이러스인 “삼중 전염병(코로나, 독감 및 RS 바이러스)”에 직면하고 있으므로 가장 취약한 사람들과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은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률이 감소할 때까지 온라인 예배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팬데믹 기간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하이브리드 예배를 방송하는 교회의 수가 급격히 증가했으며 대부분의 교회가 이 플랫폼을 사용하여 온라인 예배를 계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컴퓨터로 가상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즉 예배를 실시하는 사람과 나중에 보는 사람 모두를 교인들과 사역에 연결하는 데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다. 여러분의 예배와 공간이 2019년의 모습 그대로라면, 예배와 공간에 직접 참석하는 사람 모두에게 적절한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어떤 변화가 필요한가? 하이브리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어떤 인력이 필요한가? 여러분의 예배를 평가하고 변화를 줄 때 창의적으로 되어야 한다.

대유행 이후의 현실에서는 관계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팬데믹의 절정은 사람의 고립, 외로움, 정신 건강 문제를 심화시켰다. 그 결과 많은 사람이 다른 사람과 만나고 관계를 맺기를 원한다. 대면 예배든 하이브리드 예배든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

다. 적절한 음악과 통찰력 있는 설교로 완벽한 예배를 만들려고 애쓰는 일에 빠지기 쉽다. 이것이 예배를 경시하거나 무시하라고 권고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신앙 공동체와 연결되어있다고 느끼도록 돕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제안하는 것이다.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의견이 경청되고 존중받는 대화를 가지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확실히 이것은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어려운 일이지만 그렇다고 불가능하지는 않다. 예배 후 줌(Zoom)에서 소그룹 모임을 하거나 사는 곳을 기반으로 커피숍에서 만날 기회를 제공하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핵심은 사람들이 자신을 돌보는 신앙 공동체에 연결되어있다고 느끼도록 돕는 관계를 만드는 데 의도적으로 임하는 것이다.

교인의 헌금이 회복되지만 많은 교회는 여전히 불확실한 재정적 미래에 직면해 있다.

최근의 여러 연구에 따르면 팬데믹의 가장 암울한 시기 이후의 교회에 헌금하는 것이 다시 회복되고 있다. 최근 기빙인 페이스(Giving in Faith)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에 헌금하는 사람의 84%가 자신의



온라인 공동체 진실성 만들 때, 소통 일어난다!

조나스 쾰버그 교수의 기술·미디어 문화에서 디지털 기독교 공동체

전세계 인구의 증가에 비례하여 디지털 형태의 소통이 일상생활에서 보편화되고 있다. 위아소셜(We Are Social)의 최신 연례 보고서에 실린 주목할 만한 통계는, 전 세계 50억 인터넷 사용자들이 소셜 미디어에서 하루 평균 거의 2.5시간을 보낸다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서로 소통하고 관계를 맺는 방식과 관련이 있다. 관계성(relationality)은 성경의 내러티브에 내재해 있으며 신학적 인류학, 교회론, 심지어 구원론의 중심 개념이다. 서로 교제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의 구성 요소이며 교회가 화해된 공동체로서 증언하는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중심에 있다.

이와 같이 디지털을 매개로 하는 소통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 이슈들과 관련이 있다. 디지털 미디어와 그것이 우리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평가하든지, 그것은 많은 사람에게 피할 수 없는 삶의 현실이 되었으며, 디지털 문화는 우리가 처한 상황의 일부, 즉 전 세계 교회를 위한 것이다.

조나스 쾰버그(Jonas Kurlberg)는 로잔신학위원회(Lausanne Theology Working Group) 위원이며, 스펄전 대학(Spurgeon's College)의 신학 강사이자 디지털 신학 석사 프로그램(MA in Digital Theology)의 프로그램 관리자이다. 또한 더럼 대학교(Durham University)의 연구원이며, 디지털 신학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Global Network for Digital Theology)를 주관하고 있다.

그는 이와 같은 맥락에서 즉, 기술/미디어 문화에서 기독교 공동체를 통한 온전한 관계성 형성이 바로 선교의 관건이라고 말한다(Church in a Digital Age: BUILDING CHRISTIAN COMMUNITY IN A TECH AND MEDIA CULTURE).

(3면으로 계속)



시론 이동진 목사 3면



푸른초장 양수철 목사 4면



인터뷰 홍귀표 목사 16면

월드미션대학교 신학/상담학/음악학/예배학/간호학/사회복지학 캠퍼스온라인

Nouvelle Dental 윤새롬 치과 Lily Yoon DMD

Sharing Bread for Soul 월드쉐어USA 생명의 빵 나누기 운동 본부

www.laguesthouse.com LA 호텔식 하숙 GUEST HOUSE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목사 학력 및 자격고시 안내. 목사 학력 및 자격고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자는 아래 요령과 같이 지원하여주시기 바라며, 모든 서류와 시험은 한글과 영어 중 편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발행인 칼럼

일어나라 튀르키예!



김성국 목사 (권장로교회 담임)

튀르키예(터키)에는 지금 눈물이 강이 되어 흐르고 있다. 튀르키예 남동부에 위치한 아름다운 도시 카흐라만라슈와 인근 지역들은 지금 죽음의 도시들로 변화되고 있다. 현지 시간 지난 6일 새벽, 강력한 지진이 일어나 그 숫자를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아직 갇혀있다고 한다. 필사적인 다국적 구조 작업이 계속되고 있지만 무너진 건물 더미에 갇힌 자들에 대한 생존의 희망은 점점 사라지고 있다. 지난 2021년 8월에 있었던 큰 산불로 많은 사람과 재산을 잃고 통곡했는데, 그 통곡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그들에 눈에 또다시 흐르는 고통의 눈물을 본다.

그들의 눈물은 먼 나라의 눈물이 아니다. 형제의 눈물이다. 그들은 한국전쟁 때에 14,936명의 군대를 파병하여 724명이 전사하였고, 2,068명이 부상을 입었고, 163명이 실종되었으며, 244명이 포로가 된 혈맹 중의 혈맹이다. 그래서 지난 2002년 월드컵 4강전에서 우리가 패했지만, 한편으로 그들의 승리가 꽤 기쁘기도 했었다. 일반 역사뿐 아니라 교회사적으로도 그곳은 의미심장한 나라이다. 튀르키예를 빼놓고 기독교를 논할 수 있겠는가. 그 땅들은 초대 기독교의 역사를 고스란히 품고 있다. 요한계시록의 소아시아 일곱 교회를 비롯하여 성경 곳곳에 그곳의 여러 지명들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등장한다.

돌이켜보면 결혼 생활 중에 아플 때가 많았다. 임원도 여러 차례 했었다. 코비드 19를 두번이나 앓았다. 첫 번째는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었다. 아내는 나의 일상을 섬세하게 살펴줄 뿐 아니라 아플 때는 생명을 건든 간호해 주었다. 아내도 간혹 아플 때가 있었다. 아내가 누워있던 병상에서 밤을 지새운 적도 있었고 유방암 수술과 치료의 과정에 함께하기도 했다. 그때 내 입에서 흘러나온 소리가 있었다. 'My turn' 이제 내가 아내를 돌볼 차례라고 말하며 아내를 살피주었지만, 솔직히 말하면 아내가 내게 해주었던 정성에 만분의 일도 못미치는 것 같았다.

이제 우리의 차례(turn)이다. 눈물을 흘리는 튀르키예를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돌볼 차례가 되었다. 모든 것에는 타이밍이 중요하다. 튀르키예군이 부산에 도착한 것은 1950년 10월 17일이다. 그때 참전한 군인들은 대한민국이 어디에 있는지 제대로 몰랐을 것이다. 한국 사람과 친하게 지냈던 군인이 몇 명이나 있었겠는가. 그런 한국인이 이런저런 이유로 파병을 미루거나 포기했다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 이제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들의 아픔을 품을 때이다. 이제 우리의 손을 내밀어 그들을 붙잡아 줄 때이다. '튀르키예, 우리와 함께한 그대 때문에 우리도 일어났다. 이제 우리가 그대와 함께 하리라. 일어나라 튀르키예!'

미국은 '결함있는 민주국가', 한국은 2021년보다 8계단 하락, 북한은 165위 EIU, 167개국 대상으로 '2022년 지구촌 민주주의 지수 발표 결과'

영국 경제분석기관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은 지난 1일, '민주주의 지수 2022'(Democracy Index 2022)를 발표했다.

EIU는 2006년부터 167개 국가를 대상으로 5개 영역을 평가해 민주주의 발전 수준 점수를 산출하고 있다.

8점이 넘는 국가는 '완전한 민주국가', 6점 초과~8점 이하는 '결함 있는 민주국가', 4점 초과~6점 이하는 '민주·권위주의 혼합형 체제', 4점 미만은 '권위주의 체제'로 구분한다.

지난해 기준으로 한국은 세계 167개국 중 24위를 기록했다. 전년보다 8계단 하락했다.

평가 총점에서 10점 만점에 8.03점을 기록, 3년째 '완전한 민주국가'(full democracy) 평가는 간신히 지켰다.

한국은 2020년 8.01점으로 23위에 오르며 5년 만에 '결함 있는 민주국가'에서 '완전한 민주국가'로 평가받았다. 2021년에는 8.16점으로 16위를 기록했다.

한국은 이번 평가에서 ▲선거 과정과 다원주의 9.58점 ▲정부 기능 8.57점 ▲정치 참여 7.22점 ▲정치 문화 6.25점 ▲국민 자유 8.53점을 받았다.

전년보다 '국민 자유' 영역 평가는 0.59점 올랐다. 반면 '정치 문화'에서 1.25점 하락해 전체 평균 점수를 깼다.

EIU는 "수년간의 대립적인 정당 정치가 한국의 민주주의에 타격을 줬다"며 "정치에 대한 이분법적 해석이 합의와 타협의 공간을 위축시키고 정책 입안을 마비시켰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정치인들은 합의를 모색하고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보다는 라이벌 정치인들을 쓰러뜨리는 데에 정치적 에너지를 쏟는다"며 "대중들이 갈수록 민주 정치에 환멸을 느끼고, 공직자들에 대한 신뢰를 잃으면서 민주주의 지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치적 제약에 방해 받지 않는 강한 지도자의 통치에 대한 지지가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에서 북한은 전년과 마찬가지로 165위를 기록했

이후 '결함 있는 민주국가'로 떨어졌다. 버락 오바마 전 정부 말기인 2016년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4년 임기 내내 '결함 있는 민주국가'로 평가받았다.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에도 평가는 하락세다.

팬데믹 이후 사역...

(1면에서 계속)

교회로 하는 헌금을 유지하거나 늘렸다. 개신교 목회자를 대상으로 한 라이프웨이 리서치의 설문 조사에서, 10명 중 7명은 2021년에 헌금 수준이 최소한 예산을 충족했다고 말했다. 48 퍼센트는 교회에서 헌금을 할 때 작성한 만큼 헌금했고, 22퍼센트는 작성한 것보다 많이 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결과는 2020년에 약간의 감소에 이어 2021년에는 전체 자선단체 기부가 4% 증가하고 종교단체 기부가 5.4% 증가했음을 보여주는 기빙 유에스에이(Giving USA의) 데이터와 일치한다.

그러나 팬데믹이 모든 가정, 지역 또는 경제 부문에 동일하게 경제적 영향을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아마도 더 중요한 것은 모든 교회가 똑같이 팬데믹에 접어들면서 활기차고 재정적으로 건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어떤 교회에는 전염병과 관련된 재정적 악화가 결정적인 어려움을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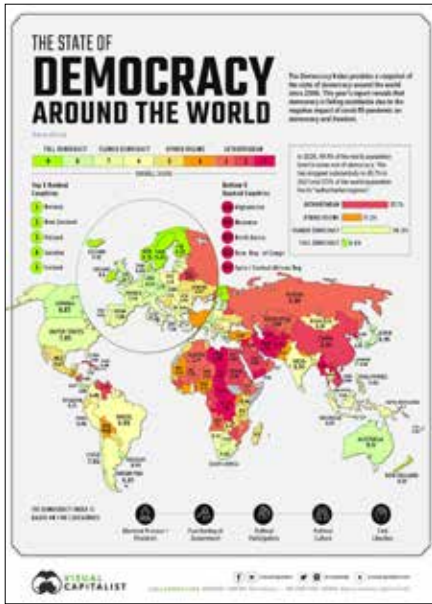
긍정적인 측면에서 팬데믹 기간 가상 사역과 디지털 헌금을 채택한 교회들은 그렇지 않은 교회들보다 훨씬 더 나은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헌금이 안정적이거나 심지어 증가하는 교회들 역시 이제 안전하다는 잘못된 생각에 빠져들지 말아야 한다. 거의 모든 교회에서 헌금의 가장 큰 몫은 매우 헌신적이고 관대한 소수의 교인이 기부한 것이다. 그들 중 다수는 나이가 많다. 그들의 헌금은 다른 부분이 축소됨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재정적

으로 풍요하게 유지했다. 그러나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것이다. 많은 교회와 교단에서, 예배 참석 수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온 교회가 거의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오랫동안 지속된 "적은 수의 사람이 더 많이 내는 헌금"의 경향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

교회는 시간제 목회자와 더 많은 평신도 사역자를 점점 더 고용하고 있다.

종교 인력의 윤곽은 평균 교회 규모의 감소, 사역 패턴의 변화, 목회자의 평균 연령 상승 및 기타 요인의 결과로 계속 변화하고 있다. 주목할 만한 변화 중 하나는 시간제 및 이종직 목회자의 증가이다. 예를 들어, 연합감리교회를 살펴보면, 루이스 센터의 종교인력 프로젝트는 평균 예배 참석자가 50명 이하인 연합감리교회 비율이 2000년 49%에서 2019년 62%로 증가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아주 작은 교회의 시간제 목사가 섬기는 비율은 2000년 약 절반에서 2019년 약 2/3로 증가했다.

또 다른 주목할 만한 추세는 평신도 사역자의 지속적인 증가이다. 연합감리교회의 예를 다시 살펴보면, 평신도 사역자 채용에 사용되는 인건비의 비율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평신도 사역자를 위한 지출은 1989년 인건비의 28%에서 2019년 47%로 증가했으며, 목회자를 위한 지출은 같은 기간, 전체 인건비의 72%에서 53%로 감소했다. 이 두 가지 경향은 교회가 그들의 사명을 수행하는 방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다. 평점도 1.08점으로 같았다. 북한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국가는 쿠데타 이후 군사정권 폭정이 진행중인 미얀마(0.74점), 이슬람 무장단체 탈레반이 집권한 아프가니스탄(0.32)이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대만(8.99점)이 9위를 기록하며 톱 10 안에 들었다. 일본(8.33점)은 전년보다 1단계 높은 16위를 기록했다. 중국(1.94점)은 8단계 추락하며 156위에 머물렀다.

미국(7.85점)은 30위로 전년보다 4단계 하락했다. 2006~2015년 '완전한 민주국가'에 있다가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 편집국장: 김재삼 ■ LA지사장: 이성자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665-0009 (대표)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대표) E-mail: nychpress@gmail.com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 is Published Weekly(except for New Years Day and April 22, July 4, and Nov 25.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Periodical postage is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기독교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성화, 성구약자, 크리스탈강대상, 성가대·목사까운

(323) 737-7699

인터넷 쇼핑: www.lachristianbookcenter.com E-mail: cbc0191@hotmail.com 1027 S. Western Ave., #2 L.A. CA 90006

교회인쇄물·헌금봉투·배너

Order Online 30% LOW PRICE in2printing.com

인투인쇄 T. 718-425-8505

담임목사 청빙공고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KAPC) 소속 필라델피아 영생장로교회에서는 현 담임목사님께서 65세에 은퇴하시고 선교지로 파송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새 담임목사님을 청빙하고자 합니다.

청빙 조건

- 1. 교단이 인정하는 신학교 졸업 후 KAPC 소속이거나 가입이 가능한 분으로 목사 안수 후 미국에서 담임 목사 및 부목사로 3년 이상 목회 경험이 있으신 분
2. 확고한 개혁주의 신학 위에 성숙한 신앙 인품과 리더십을 가지신 분
3. 만 55세 이전의 나이로 다음 세대와 이민교회 미래를 위한 비전이 있으신 분
4. 영어 소통에 문제가 없고 미국 내 체류 및 목회 활동에 결격 사유가 없으신 분

제출 서류

- 1. 이력서 (가족사진 포함)
2. 자기소개서 (신앙 고백 및 자신의 비전에 영향을 끼친 책이나 신학자, 목회자 인용)
3. 학력 증명서
4. 속해있는 교단의 노회에서 발행한 안수 증명서
5. 신학교 교수 및 명망 있는 목회자의 추천서 (추천자의 연락처 포함)
6. 최근 설교 영상 2편 (온라인 링크) * 설교 원고 포함

유의 사항

- 1. 제출된 서류는 후에 반환하지 않습니다.
2. 제출 마감일: 2023년 3월 15일
3. yspastor2023@gmail.com으로 보내시고 첨부파일은 PDF file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충만·기도충만·성령충만·사랑충만 영생장로교회

Yuong Sang Presbyterian Church 706 Witmer Road, Horsham, PA 19044 http://www.yspc.org | 215-542-0288

영생장로교회 청빙 위원회

FAMILI STUDY Food And Microbiome Longitudinal Investigation

NYU 의과대학 웨일리 연구 참여자 모집 안내

- 미국 국립보건원(NIH)과 NYU 의대 웨일리 연구팀 (총책임자: 안지영 교수)은 세계 최초로, 여러 민족의 식습관, 환경, 박테리아와 만성 질병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 특히 미국에 거주하시는 한국인의 질병발생 및 위험요인을 연구하여, 질병예방 및 보건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의료보험이나 신분에 관계없이, 40세 이상인 미국내 거주자는 한번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을 보내 주시면,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우송해 드립니다.
• 집에서 완료하신 후, NYU의대로 무료 우송해 주시면, 25불 기프트카드를 보내 드립니다.

NYU 의과대학 웨일리 연구 연락처

FAMILI Study (Hee Choi, MS, RD) NYU School of Medicine 180 Madison Avenue # 3-23 New York, NY 10016 전화: 646-501-3673 | 646-501-3674 문자: 929-410-4475 이메일: hee.choi@nyulangone.org 웹사이트: http://www.nyufamili.org/kor/index.php



한분 한분의 참여는 우리의 2세에게 보다 건강한 사회를 남겨 줍니다.

여러 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공동체 진실성 만들때...

(1면에서 계속)
온라인 공동체의 '진실성'

지난 몇 년 동안 나는 다양한 그룹을 위해 교회와 디지털 기술에 대한 워크숍을 여러 차례 이끌었다. 이를 통해 내가 관찰한 바는 주로 디지털 이주자로 구성된 그룹이 온라인 공동체의 진정성(Authenticity) 또는 진정성의 부족에 대해 토론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Z세대 간에 일어나는 디지털 형태의 교제가 갖는 '진실성(realness)'에 대해 질문을 던질 때 나는 종종 무표정한 얼굴과 마주했다. 디지털 원주민들(natives)에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소통은 대체로 매끄럽고 연속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이는 일부 사회학자들이 10년 이상 동안 제안해 온 내용을 반영한다. 즉, 인터넷은 우리가 때때로 방문하는 별도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 내재하는 현실로 점점 더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뚜렷하게 구분하는 '디지털 이원론'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즉, 우리가 온라인에 참여하는 방식은 오프라인 생활에 깊은 영향을 미치며 그 반대로 마찬가지이다. 온라인 낚시질(trolling)로 받는 감정적 영향은 열면 대면 대화에서 듣는 거친 말만큼 강하게 느껴진다. 우리는 일상에서 일어난 일을 소셜 미디어 피드에 게시하고 메시지 앱을 사용하여 친구들과 일상을 공유한다. 우리는 다른 지역에 사는 가족들과 화상 회의를 통해 유대를 강화한다. 디지털상의 소통이 갖는 영향과 의미는 실제적이므로 온라인상의 관계가 '진실된 것'인지 묻는 것은 잘못된 질문을 하는 것이다.

온라인 공동체의 질과 성격

그러나 이것은 디지털 미디어 기술이 우리가 서로 관계를 맺는 방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온라인 공동체의 질(quality)과 깊이에 관하여 우려하는 것이 당연하다. 전반적으로 온라인 공동체는 낮은 수준의 헌신과 빈번한 일시적인 연결로 인해 유대가 약해지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사도행전 2:43-47에 제안된 코이노니아의 피상적이고 부적절한 반응으로 일축될 수 있다.

그러나 신학자 캐서린 슈미트(Katherine Schmidt)는 공동체 내에서 강한 유대와 약한 유대를 구분하면서 우리 지역 회중 내의 모든 사람과 친밀하게 연결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제안한다. 반대로, 그녀는 약한 유대가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여기서도 디지털 기술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소셜 미디어와 메시징 앱(messaging apps)은 일주일 내내 서로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게 한다. 기도

요청, 격려의 메시지, 다가오는 행사에 대한 알림은 공동체를 하나로 묶을 수 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디지털 통신 기술은 기존의 관행을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참여를 서로 대립시키는 것은 단순히 잘못된 이분법이다.

온라인 공동체가 주로 약한 유대에 의해 유지된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일부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가지는 깊은 기독교 교제를 부정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포럼에 참여하고 실망, 애도, 고통의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도움을 받았다고 느꼈다. 우리 지역 사회의 주변부에 있는 일부 사람들은 인터넷을 통해 기독교 교제에 의미 있는 참여를 방해하는 사회적 및 물리적 장벽을 극복할 수 있었다.

더 나아가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 온 그리스도인들과 연결될 가능성이 풍성해질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공동체 경험을 이유로 알아차리거나 디지털 방식의 소통에 대한 우리 자신의 부정적인 경험을 보완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결국 어떤 관계나 공동체의 질은 대부분 주관적이기 때문에 측정하기 어렵다.

더 나아가 지리적 제한으로 인해 생긴 부분적 중단은 세계 교회를 강화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로잔신학위원회(Lausanne Theology Working Group)로서 우리가 일하는 방식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화상 회의 기술을 통해 우리는 시간대를 초월하여 정기적으로 만나 전 세계의 관점과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디지털 시대 이전에는 변경되었을 방식으로 서로와 연결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디지털 미디어 기술의 사용은 세계 교회를 건설하는 데 기여한다.

물론 디지털 격차는 많은 사람이 '세계의 가상 교회'에 참여할 가능성에서 여전히 배제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남반구에서 인터넷 접속이 급속도로 확장되면서 그것은 이미 서구 교회의 신학적, 교회의 지배력을 약화시키는 권력 불균형을 재구성하는 과정에 기여하고 있다.

의도성과 온라인 공동체 형성하기

디지털 미디어의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것은 인터넷의 여파로 등장한 실제적인 문제를 축소하려는 것이 아니다. 언론에서는 디지털 미디어가 정신 건강, 우리 사회 양극화와 신뢰 잠식, 셀프 브랜딩(self-branding)의 자기애적 경향, 설득력 있는 기술을 통한 조작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정기적으로 특징 기사로 다루고 있다.

안젤라 고렐(Angela Gorrell)이 제안하듯이, 새로운 미디어는 '영광스러운 기회와 심오한 단절'을 모두 제시한다. 이는 우리가 열광적인 적응이나 무시하는 거부와 같은 반사적인 반응과는 다르게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흥미 있는 대화'에 주목할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모든 관계와 공동체 형성을

위한 노력에서와 마찬가지로, 온라인 참여에는 어느 정도의 의도성(intentionality)이 필요하다. 개인적인 관계와 동료애를 증진하는 데 필수적인 많은 덕목과 습관들은 디지털을 매개로 하는 소통에도 적용된다.

그러나 우리가 특별히 염두에 두어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사람들의 의사소통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는 특정 상황에서 정기적으로 사람들을 만난다. 대조적으로 일부 학자들은 온라인 참여가 '백라의 부재'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시사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화상 회의 플랫폼에서 만날 때 우리는 서로를 소개하는 데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래야 최소한 그 방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다.

또 다른 예를 들자면, 극도로 제한된 형태의 소통 방식인 트위터는 그 맥락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쉽게 오해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인식한다면 우리는 사람들이 의사소통을 해석할 때 그들에게 의심할 여지를 주어야 한다. 오늘날 소셜 미디어가 양극화에 인과관계의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우리 사회의 분열이 깊어지는 경향은 사람들 사이의 신뢰를 잠식하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다. 그리고 신뢰는 모든 기능을 발휘하는 사회와 공동체의 통화(currency)다.

그리스도의 대사로 우리는 화해의 사역에 부름을 받았다(고후 5:18). 이를 위해서는 최소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우리와 의견이 다른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디지털 문화에서 네트워크화된 공동체

디지털 방식의 소통은 교제를 위한 새로운 가능성을 제한하거나 창출할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 사회의 역동성을 변화시켜 전통적인 제도적 교회 모델에 도전한다.

온라인 공동체의 특징 중 하나는 지리적으로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사실은 사회가 네트워크화된 구조를 향해 더 폭넓게 변화하도록 이끌었다. 이러한 변화 중 일부는 세계화 및 도시화에서 기인하지만, 인터넷의 출현으로 사회가 확실히 약해졌다. 과거에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주로 지역 교회에 국한되었다. 오늘날의 네트워크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이전 지역 교회와의 연결, 예규메니컬 교회 그룹, 홈 그룹/셀 그룹, 선교 단체, 기독교 콘퍼런스, 왓츠앱(WhatsApp) 기도 그룹, 페이스북 성경 공부 그룹, 온라인 토론, 전 세계의 실시간 온라인 서비스와 같은 영적 자양분을 제공하는 여러 그룹 및 공동체의 일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것의 단점은 공동체에 대한 네트워크화된 접근 방식이 소비 중심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6면으로 계속)



시론

진화하는 시앞에 선 창조주의 세계



이동진 목사
(성화장로교회)

'로봇', 지난 세대의 단어이다. 로봇이 맞는 철자법이라고 컴퓨터가 자동교정해주는 로봇이라는 발음이 주는 신세계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과 두려움은 그것이 로봇이라는 발음으로 교정되거나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라는 용어로 바꾸어부르는 가운데 어느새 인간세계 속에 인간처럼 자리잡은 시대가 되었다. 그래서, 로봇은 이미 인류의 호기심을 넘어, 무언가 막연한 두려움을 느끼게할 정도로 진화를 이루어내었다.

이미 '로봇'이라는 말보다 '인공지능(人工智能, AI)'이라는 말이 더 친숙해질 정도로 진화하는 가운데 존 매카시가 다트머스회의에서 제안했던 '기계를 인간행동의 지식에서와 같이 행동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기본적 정의(定義)로 인류 곁에 안착했다. 물론 전문가들은 이 기본 정의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첫째 인간처럼 사고하는 시스템, 둘째 인간처럼 행동하는 시스템, 셋째 이성적으로 사고하는 시스템 그리고 넷째 이성적으로 행동하는 시스템'이라는 단계로 분류해서 받아들였고 그 과정에 적극 동참해왔다.

최근 언론에 급격하게 소개되기 시작하는 AI 챗봇 '챗GPT'가 일으키는 센세이션을 대하면서 전문가들이 분류해 다루어온 단계의 마지막 단계인 '이성적으로 행동하는 시스템'이 이제 우리 앞에 가까이 다가왔다는 사실을 실감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인간의 마음을 유한상태 기계(Finite State Machine)로, 뇌(腦)를 순수한 하드웨어로 보기 때문에 인공지능의 진화를 이루면 이와 같은 단계가 결국 이성적으로 행동이 가능한 AI시대를 이룰 것이라고 예견해왔던 것이다.

교회는 창조론을 믿는다. 이 말은 즉, 인간지능이 아무리 고도로 발전한 다해도 유일하고 능동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신앙고백 위에 서있다는 말이다. 그런데 그러한 인간세상에 찾아온 로봇, 이젠 AI라는 이름을 지나 더욱 진화된 챗GPT라는 이름 등으로 하나님의 창조세계 속으로 들어오는 현실이 되었다. 이렇게 인공지능에 밀려가는 인간이 미래를 대비하는 방법은 무엇이어야 할까? 기계적 방법으로 기계인 컴퓨터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 결국 창조신앙의 점검으로부터 인류의 미래를 찾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MIT-IBM의 AI연구소는 최근 아태지역 언론매체를 대상으로 한 모임에서 "현재 5건 이상의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저명학자팀을 비롯해 700여명 이상의 연구결과가 전문학술지에 게재되었다"고 전하면서, "AI초기인 좁은 인공지능(Narrow AI)을 통과해 이제 막 넓은 인공지능(Broad AI)에 들어서고 있는 연구 수준은 앞으로 일반인공지능(General AI)까지 계속 빠른 속도로 진화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보도되었다.

요즘 급격히 회자되는 생성인공지능(AI)의 서비스인 '챗GPT'는 이미 미국 의사면허시험과 로스쿨, MBA시험에서 합격점을 받았다고 한다. 또한 콜롬비아의 한 판사는 챗봇을 활용해 판결문을 작성하기도 했고, 소설도 시도 쓰고 있다고 한다. 이런 진화된 AI의 활동은 교회 안에도 이미 들어와 있다.

일부 목회자들은 농담처럼 이렇게 얘기한다. 우리가 앞으로 설교할 일이 없을 것 같으며 "주제와 본문과 간단한 설교방향 등을 입력하면 챗봇이 최고의 명설교 원고를 만들어주고, 또한 가장 매력적이고 감동력있는 목소리로 오디오파일까지 만들어주는데 우리 설교를 누가 듣겠나요?"...

AI의 진화는 창조신앙보다 더 영향을 주기 시작했고, 우리가 AI의 진화를 농담처럼 얘기하는 동안에도 AI는 더욱 신속하고 명료한 진화를 이루어가고 있다. 성경에 농담이라는 말이 창19장에 나온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앞에서 롯의 사위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농담으로 여겼다는 기록. 지금은 AI의 급속한 진화 앞에 서있는 시대인데 이 진화되는 AI의 말없는 경고를 농담처럼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할까? 수준높은 신학논문도 설교도 만들어내고있는 진화된 AI앞에서 만일 편리함과 효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성도가 가진 창조신앙의 자리를 포기하고 AI에게 맡겨버린다면 우리의 시대는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은 더 깊은 사유(思惟, 말씀묵상)의 자리로 들어가야 할 때임을, 모든 창조 앞에 더욱 겸손함으로 세상을 보듬는 진정한 사랑의 힘을 채워가야 할 때임을 묵상하며 깨어날 때라는 현실이 절실하게 다가온다.

djlee7777@gmail.com

Candidacy Qualification

Those who wish to become candidates are encouraged to send in all the necessary documents to begin the process. Those who prefer the use of English may submit all documents and take exams in English.

Exam Subjects

- a) Written Test :
 - (1) Church History (2) Systematic Theology
 - (3) American Church History (4) Constitution of KAPC
 - b) Written Assignment :
 - (1) OT Exegesis Paper (2) NT Exegesis Paper
 - (3) Thesis Paper (4) Manuscript of Sermon
- (1) OT Exegesis Text : Isaiah 52:13 - 53:12
 (2) NT Exegesis Text : Hebrews 10:19 - 25
 (3) Thesis Topic : Write about the Reformed Church in the Post-Pandemic era - 'Metaverse and the Lord's Supper'
 (4) Sermon Text : O.T- Amos 8:11 - 14, N.T- 2 Timothy 4:1 - 5
 (5) Instructions for the written assignments :
 * Plagiarism will not be tolerated.
 You must submit one hard copy and email a PDF file of each written assignment according to the following regulations:
 ① Use 8-1/2" by 11" letter size papers.
 ② Use 12-point font (Times New Roman), 1-inch margins, double space, use page numbering, proper footnoting, and include bibliography.
 ③ Both thesis and exegesis papers should be about 25 pages each in length excluding title page and bibliography. The length of the sermon text should correspond to 30 minutes of actual preaching time.
 ④ Use a common academic writing format, and all quotes, and cited information must accompany proper references (i. e. footnotes or endnotes).
 ⑤ All PDF files must be emailed to euihan@hotmail.com with the following instructions:
 ① The subject line must include your name
 ② File attachments must include your name and assignment title.
 (Ex. KisungSon-OTExegesisPaper.pdf)
 c) Oral Interview



The following information is regarding the "Pastoral Ordination Candidacy Qualification and Exams," which will be offered in May of 2023

Pastoral Ordination Candidacy Qualification and Exams

Instructions for Documents and Written Assignments Submission

- a) All required documents and written assignments must be submitted by March 31, 2023. (Packages post-marked before March 31, 2023 are valid. No late submissions will be accepted.)
- b) The candidates will not receive back the submitted documents and assignments.
- c) The results of the exam will be announced during the 47th meeting of the General Assembly (May 23-26, 2023). The candidates who successfully sustain the examination process will be announced on the floor and will be given Ordination Candidate Qualification Certificates.

Exam Date and Place

- a) Dates : May 22(Mon)~23(Tue), 2023
- b) Place :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of Queens (Vice Moderator Rev. Seoung Kook Kim)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Accompanying Documents

- a) A copy of the certificate of graduation of Bachelor & M. Div. degree or a letter from the registrar (or the president of a seminary) certifying that the candidate is expected to graduate through June 30 of 2023.
- b) An official copy of transcript for the whole M. Div. program.
- c) A letter of recommendation from the moderator of a Presbytery that the candidate is under care.
- d) An official letter from a Presbytery (issued by the clerk) confirming that the candidate under care is in good standing.
- e) Curriculum Vita (CV) including a clear history of faith (For example, the year of baptism, the name of the church where the baptism was given and the name of the officiating minister, etc.)
- f) Two passport-size photos of the candidate.
- g) Fee: \$100 (USD). Notice after receipt

Miscellaneous Information

- a) Candidates must reserve rooms appropriately for the dates of exam (May 22-23, 2023) through Rev. David H. Park
- b) Candidates may use personal notebook computers for written exams, but the following conditions must be met :
 - (1) The personal notebook must contain only a Word Processing program.
 - (2) The screen is not to be changed during an exam. Violators will not be tolerated and will result in dismissal from the examination room.
 - (3) One must bring his own printer. Any mechanical problems will not constitute a valid excuse for failing to submit the exam on time.

Submit To

Rev. David H. Park
Address : 21-01 124th st. College Point, NY 11356 U.S.A
Cell : (917) 254-0887 E-mail : heepark91@gmail.com

Contact Persons for Information

- a) Chair of the Exam Committee Rev. Kisung Son (703) 725-6468 663927@gmail.com
- b) Clerk of the Exam Committee Rev. David H. Park (917) 254-0887 heepark91@gmail.com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총 회 장 : 홍기표 목사
서 기 : 안병권 목사
고시부부장 : 손기성 목사
고시부서기 : 박희근 목사

인간과 동물의 구별

성경은 인간과 동물 사이에는 분명한 구별이 있음을 말씀한다. 성경에 나타난 창조의 원리를 볼 때도, 동물은 인간과 결코 동등할 수 없는 존재이다. 동물은 인간의 다스림속에 존재할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할 수 있도록 지음받은 존재이다. 동물 스스로에게는 '다스림'이 존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밀립의 사자가 아무리 강해도 다른 동물들을 본능에 따른 약육강식의 힘으로 지배를 할 따름이지, 동물의 왕인 사자가 밀립을 잘 다스려 아주 평화롭게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다. 동화책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다. 정치를 하거나 다스릴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그런 다스림의 능력이 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 특히 플라톤의 국가론과 같은 책을 보면, 인간만이 가지는 다스림의 정치에 대한 탁월한

이것이 결코 섞여 질 수 없음을 말하고 있다. 결코 동물이 사람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경험의 한계와 믿음

동물들은 먹는 것에 구분이나 기준이 없다. 일단 먹어보고, 본능과 경험의 감각으로 배우게 될 따름이다. 먹고 죽지 않으면서 배를 볼릴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먹고 배불리려고 하는 것이 동물이라는 존재이다. 동물이 스스로 자신의 몸 상태를 파악해서, 슈거프리 설탕을 먹거나 단백질이나 칼슘을 선별해서 먹지 않는다. 그렇게 먹을 수 없다. 죽은 시체까지도 먹는다. 사자가 먹고, 하이에나가 먹고, 들개가 먹고, 날아다니는 까마귀가 먹고, 나중에는 개미와 벼룩까지 등장해서 빼만 남기고 먹어 치우는 것을 본다.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을 구분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동물들의 세계이다.

같은 것만 보이면 거의 환장(?)을 하게 된다. 게다가 가끔 사슴이라도 나무 영지에 걸려있는 것을 보면, 지뢰에 대한 경고판은 뒤로하고 가지러 들어가게 된다. 결국, 잘못 밟을 디뎠다가 다리를 잃어버리거나 생명을 잃는 경우와 같은 불행이 따르는 것을 보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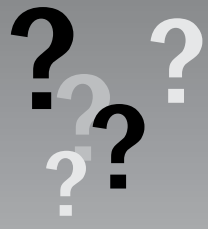
들어가자 말라는 표시가 있지만, 들어가 보고 나서야 이것이 잘못되었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은 너무 바보같은 것이다. 죄를 지어보아야 죄의 열매가 쓴맛임을 아는 것도 마찬가지다. 성경에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이 함께 들어 있다. 이것을 알고 지킬 때 복을 누리게 된다. 사고를 저질러 보지 않고도 미리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음은 자신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축복이 된다. 탕자 아들처럼 아버지 집을 떠나 돼지가 먹는 쥐엄열매를 먹어보고서야 아버지 집이 그림고 좋은 줄 안다면, 참 어리석은 것이

도 말씀하셨다. 물론, 동물들은 거주지를 마음대로 옮겨 다닐 수 있다. 인간이 제공하는 인력 한 문명 속에서 훈련이 되어 가만히 있을 뿐, 자연 상태의 새와 짐승은 어디든지 마음대로 자신의 원하는 대로 옮겨 다니며 살아갈 수 있다. 야생의 세계에서 짐승들의 움직임을 보라. 결코 가만히 정제되어 있지 않다. 본능이 저들을 어디든지 갈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사람은 어떠한가? 사람은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 삶의 거주지를 일정하게 하여 사는 것이 복되도록 하신 것이다. 에덴동산에 머물면서, 하나님께 정해 주신 곳,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금하신 것을 축복으로 알고 순종하는 것이 축복이 아니었는가? 미주 이민사회에, 마치 평생에 걸쳐 50개주에 한 번씩은 다 살아볼 것처럼 떠도는 사람들이 있다. 다양한 이유에서다. 개인적인 삶의 실패와 방향의 일탈, 경제적인 문제,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셀비치사랑교회 / (310)749-0577
TLspc0316@gmail.com

Q: 목사님의 설교 중에 팩스 로마나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것이 어떻게 생겨난 말인지요? 그리고 로마인들의 황제숭배는 언제부터 생겨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실비치에서 권근사

A: 좋은 질문입니다. 시저가 죽은 후에 그리고 후계자로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 옥타비아누스를 지명했습니다. 그는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 대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18살밖에 나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저의 심복 부하였던 안토니우스는 38세로 그를 어린 철부지로 여기며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옥타비아누스는 후계자가 되었지만 보이지 않게 이 두 사람이 정적으로 치열하게 서로 격돌하게 되는데 로마 제국이 둘로 나누어져 그 싸움은 20년간이나 계속 됩니다. 옥타비아누스는 어릴 때부터 장이 약해서 언제나 새처럼 소식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전쟁에 돌입하면 면밀하게 이해관계를 계산하며 적과 맞서 용감히 싸우는 기질이 있었습니다. 시저는 자신과 정반대의 기질을 가진 그를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옥타비아누스는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와 연합된 안토니우스를 악티움해전에서 제압했습니다. 그래서 옥타비아누스는 반란을 완전히 제압한 후 로마로 금의 환향하면서 외친 것이 강력한 로마 힘에 의한 평화, 팩스 로마나(Pax Romana)입니다.

“아우구스투스는 외적으로 내적으로 평화를 확립”

아우구스투스 시대에 엄청난 도약이 이루어졌는데 그는 오랜 기간의 정적들을 제거하며 내란을 종식시켰고, 혼돈과 폭동이 사라졌고, 질서가 확립되었으며 예술과 농업, 상업이 발전되었고 법이 구현되었습니다. 아우구스투스는 외적으로 내적으로 평화를 확립했습니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질서, 평화, 안전을 보장하는 선정이었기에 그는 군대를 재정비해 병사를 50만에서 20만으로 줄였고 나머지 30만명은 귀향시켜 토지를 주고 농업에 종사하게 했습니다. 또 국가에 진 빚을 탕감해 주고 관료직을 재정비했습니다. 그는 귀족 출신의 원로원 가운데 20여명을 선발하여 정치의 요직을 관장하는 추밀원 의원으로 임명하여 원로원을 통제하게 했습니다.

원로원은 주전 29년부터는 그를 임페라토르(황제 Imperial highness)에 덧붙여 프린키페스(제1인자, 제1시민)의 칭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Exalted(숭고한, 경외할만한 존엄사) Augustus(아우구스투스)라는 이름을 붙여주었고 인간보다 높고 신보다는 약간 모자라는 신분을 부여했습니다. 그 후부터 온갖 맹세와 제물들이 제국의 머리이자 하늘이 내린 신과 같은 아우구스투스 황제에게 바쳐졌습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했을 때 누가복음 2장 1절을 보면, 바로 이 아우구스투스가 인두체를 받기 위해 천하로 다 호적하라고 호적령을 내렸을 때입니다. 그는 AD 14년 폐렴으로 사망하자 원로원은 그를 신으로 명명했습니다.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전남수 목사
(알칸사 제자교회)

광야, 지킬 것을 지키는 복

-사람, 영적 거주지, 교회-

지혜를 보고서 놀라게 된다. 어떻게 그런 고대시대에 그런 사상을 가질 수 있던 말인가? 하나님께서 창조의 때에 인간에게 주신 '다스림의 축복'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인간, 혼합될 수 없음

동물을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는 분들이 많다. 그러나 그 사랑이 결코 그 동물을 사람과 동일시 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사람까지 가면 안 된다. 갈 수가 없다. 심리학에서는 원숭이 같은 동물을 가지고 연구를 한다. 복제인간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인간과 DNA 단백질 구조가 가장 비슷한 돼지를 통해 연구하며 그 성과를 기대한다. 이러한 동물을 통한 연구가 성공해서, 마침내 인간복제까지 성공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생각해보자. 간절히 필요한 이들에게는 복음이 되겠지만, 매우 주의하지 않으면 인간사회가 붕괴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러나 사람은 다르다. 인간이 굳이 먹어보고, 감각하고, 경험해서 아는 것은 아주 일부에 불과하다. 사람은 경험이 아니어도, 듣고, 보고, 배우고, 생각하고 판단해서 행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만약 사람이 라고 하면서도, 마치 동물이 하듯이 모든 것을 경험해봐야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의 삶은 사람답지 못한 짐승 수준으로 곧 전락하리라 생각된다.

예전의 어느 작가의 딸이, 예술 피포먼스를 위해 돼지 똥을 온 몸에 바르고 돼지 우리에 누워있는 예술(?) 사진을 본적이 있다. 이해하기 어렵다. 굳이 해보아야 될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나쁜 짓을 해 봐야 나쁜 짓임을 알고, 죄를 지어보아야 죄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는 사람답지 못한 동물같은 존재라고 말 짓기 때문이다. 예술이 사람을 추하게 만들 수 있음을 본 것이다.

순종과 복종의 축복

강원도 철원의 최전방에서 군복무를 할 때였다. 지뢰가 매설된 곳에는 빨간색으로 접근 금지 간판이 걸려있다. 들어가자 마라, 들어가면 위험하다는 표시이다. 그런데 그곳은 한국전쟁 이후 한번도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이기도, 유혹거리들이 꽤 있다. 특히 시골출신들은 칩뿌리 캐는 것에 열심을 갖고있다. 영하 2-30도까지 떨어지는 곳에서, 한겨울 새벽에 보초를 나갔다가 돌아와서 난로 위에 끓여 놓은 칩차 한잔을 마시며 얼었던 몸이 녹아내리는 것을 보게 된다. 그래서 칩뿌리

다. 물론, 어떤 일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된다고 쉽게 말한다. 그러나 회개라는 것이 쉽지 않고,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것임을 잘 알아야 한다. 죄를 범한 인간은 아담과 하와처럼 웬만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싶어하는 죄성이 작동하기 때문이다.

지킬 것을 지키는 복

지킬 것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에덴동산의 아담과 하와를 생각하면, 미리 먹지 말라는 것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를 깊이 깨닫게 된다. 경험으로 안다는 것, 이것은 동물들처럼 광장히 한계가 있는 것이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맛보고 경험한 그 결과가 무엇인가? 결국, 에덴동산에서 쫓겨난 뒤에, 여자는 목숨을 걸고 아이를 낳아야 했고, 남자는 땀을 흘려서 일해야 하는 데, 일터라는 곳이 가시와 영경귀를 내는 그런 땅이라고 하면 아마 땀 흘릴 때마다, 후회 가득찬 시간들을 보냈으리라 여겨진다.

이처럼 지킬 것을 지키지 못하고, 죄를 지어보고 나서, 죄가 무섭고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깨닫는 것은 정말 어리석기 짝이 없는 것이다. 성경에 금지한 것을 하지 않음이 축복이다.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이 축복이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자에게 주의 은혜가 따라 다니게 될 것이다.

영적 거주지에 머물라

하나님은 먹는 것 뿐 아니라 머물러 살 곳, 거주지에 대해서

가정과 자녀의 문제 등등. 이유가 많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한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움직이는 것은 자신의 삶에 결코 아름답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마치 연못 위에 떠다니는 부초같은 인생이 되고 말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위해 정해주신 것이 많이 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 거주지가 일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성경에 복있는 인생을 살아가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주의 장막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시 84:5). 영적 거주지, 하나님이 정하신 영혼의 평안한 좌소, 하나님이 지정해두신 곳에 있는 것이 축복이다.

머무는 축복을 지킴

폴 틸리히는 '인간은 자기가 머물 곳에 머물 때 제일 행복하다.'고 말했다. 인간적인 삶을 살아가는 육신도 그러하겠지만, 영적으로는 더욱 그러하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장소가 있다.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가 있다. 기도의 역사가 있는 곳이 있다. 주님의 교회에 모여야 한다. 모여서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축복이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는 영적 거주지를 자꾸만 이탈하도록 유혹함을 본다. 히 10:25의 말씀을 거슬러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모이기를 폐하는 습관들을 더욱 좇아가는 것을 보게 된다. 교회를 두고서도, 교회 밖에서 예배하는 것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므로, 결국 교회와 예배가 무너지는 현상을 보게 되는

것이다. 과거의 목사님들은 교회 배를 즐기고 폐하고 마침내 교회문을 닫는 형태가 너무 흔해졌음을 보는 것이다. 하나님은 여호와와 장막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시 84:5)고 축복을 약속하여 주셨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영적 거주지에 모이지 못하니, 아무리 하늘과 땅에 좋은 복을 예비하였다 해도,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게 된 것이다. 연어가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듯이, 인생이 영적 거주지를 회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힘써 지키며 나아가갈 때, 마침내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귀하고 놀라운 은혜의 축복들이 주어질 것이다.

정한시간, 정한장소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어떠한가? 사람이 모이지 않는 것이 이유가 되어, 교회가 스스로 예

davidnjeon@yahoo.com

사/모/단/상



송정임 사모 (버지니아 St. John's UMC)

사모(師母)를 사모(思慕)하다

지난주 은퇴를 앞둔 신 목사님 부부를 모시고 식사를 하게 되었다. 오랜 사역과 섬김의 시간을 마무리하시며,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든다고 얘기하셨다. 특별히 음악에 뛰어나신 두 분은 청년시절 같은 교회 성가대 지휘자와 반주자로 섬기시며 처음 만나게 되었다고 예전

얘기들을 들려주셨다. 지금도 아름다운 음식과 찬양으로 예배에 감동과 은혜를 더하시는 목사님의 찬양 얘기를 하는데 사모님께서 "우리 목사님, 젊으셨을 때 정말 찬양 너무나 잘 하셨어요. 어느새 세월이 이렇게 되었는지..." 하시며 고개를 돌려 옆에 계신 남편 목사님을

지그시 쳐다보신다. 그 모습을 테이블 반대편에서 보는데 갑자기 목이 메며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무엇보다 그 말씀과 표정에 남편 목사님을 향한 진심 어린 깊은 존경과 사랑의 모습이 보였고, 함께 30여년 목회와 마무리를 앞두고 계신 선배 사모님의 회한이 담긴 담담하지

만 강하신 모습이 아름다웠다. 예원학교를 졸업하신 음악가 사모님의 손을 보니 손가락마다 마디가 울퉁불퉁하고 굵으시다. 악기를 연주하는 음악가의 하얗고 고운 손이 아니라, 부엌 일에 익숙한 어머니의 거칠고 투박한 손이다. 얼마나 힘껏 이민 한인교회 사역을 함께 감당하셨는지 알 수 있었다.

'사모(師母)'를 한자 뜻으로 풀이하면 '스승 사(師)자'에 '어미 모(母)자'로 스승의 어머니를 부르는 단어지만. 인생의 인도자가 되는 스승을 아버지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 부인도 어머니로 생각할 수 있어서 스승의 부인을 '사모(師母)'라 한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 성도들이 교회의 목자요 선생이신 목사의 부인을 '사모'라 부르게 된 것이다.

지금쯤 예전만큼은 아니라고 하지만, 한국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한결같이 하시는 말이 목사 사역의 절반은 사모의 사역이라고 한다. 심지어 절반

이상이란 말을 하는 사람도 많다. 아마 이것은 한국교회의 특징 중 하나일 것이다. 그만큼 목사의 아내, 사모는 단지 한 남자의 아내일 수만도 없고, 교회의 직분자는 더욱 아니다. 그러면서도 평범해서는 안되는 크리스천이다. 사모는 다른 성도들보다 더욱 뛰어난 소명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일꾼이다. 일생을 단지 한 사람의 아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부르신 곳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내 가는 자들이다.

소리는 같지만 뜻이 다른 동음이의어 '사모(思慕)'는 '어떤 사람을 애뜻하게 생각하고 그리워하다.' 어떤 사람을 우러러 받들고 마음속 깊이 따르다.'는 뜻이다. 특별히 사모하다 모(慕)자는 뜻을 나타내는 心(마음)과 소리를 나타내는 莫(저물다 모)를 결합하여 만들어 낸 것인데, 그 해석은 해가 저물고 밤이 되면 어떤 사람이 마음속에 자주 떠오르는 것을 의미한

다. 하루의 바쁜 일과를 마치고 잠들기 전에 생각나 쉽게 잠 못 들게 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을 그리워하거나 사모하는 것이다. 그렇게 사모(師母)는 사랑하는 하나님을 남편목사를 한 가족이 된 교회성도들을 밤마다 눈물로 사모(思慕)한다.

새해 2023년 우리의 교회와 직장 가정에 새롭게 함께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한다. 우리에게 각각 허락하신 사명도 더욱 열심히 감당 하길 기도한다.

시간이 흘러 우리 부부가 은퇴를 할 때쯤 나도 후배 목사부부에게 목회를 사모하게 하는 은혜를 끼치는 사모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열심을 다하리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 하반절 말씀) songjeongim@gmail.com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챗GPT에 놀란 구글, 자체 AI 챗봇 '바드' 출시 발표

구글이 오픈AI의 인공지능(AI) 챗봇 '챗GPT' 대항마 '바드(Bard)' 출시를 공식 발표했다. 챗GPT가 출시 2개월여 만에 사용자 1억 명을 돌파하며 돌풍을 일으키자 출시 발표를 서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온라인 정보검색 대안이 본격 시작된 것으로 평가했다.



구글 모회사 알파벳의 순다르 피차이 최고경영자(CEO)는 6일(현지시간) 회사 공식 블로그를 통해 "새로운 대화형 AI 서비스 바드가 신뢰할만한 테스타들에게 개방될 것"이라며 "향후 수 주안에 일반인들을 위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글 개발자들이 바드를 이용해 자체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도록 내달부터 기업과 개발자, 크리에이터에게 생성 언어 API(응용프로그래밍인터페이스)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구글은 오는 8일 바드 관련 오픈 행사를 열 계획이다.

구글은 6년 전 이미 회사를 AI 중심 기업으로 바꾸고, 그동안 AI 챗봇 개발에 심혈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AI 챗봇은 인터넷에 올라온 방대한 양의 텍스트를 바탕으로 정보를 생산하기 때문에 사실과 허구를 구분하기 어렵고, 여성이나 유색 인종, 소수자 등에 편향된 텍스트를 생성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뉴욕타임스(NYT)는 "구글은 AI가 편향되거나 유해한 진술을 하면 회사 명성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우려했기 때문에 이러한 유형의 기술을 대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꺼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해 챗GPT가 등장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NYT는 "챗GPT 데뷔했을 때 구글의 신중함은 AI 혁신가로서의 이점을 잠식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AI 전략 관련 회의에 직접 참석하고, 3년 전 회사를 떠난 창업자 래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도 불러들여 대책을 강구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날 구글이 AI 챗봇 출시 발표를 하자 곧바로 "7일 몇 가지 흥미로운 프로젝트에 대한 진행 상황을 공유하겠다"며 깜짝 이벤트 개최를 발표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사 검색엔진 Bing에 챗GPT 최신 버전(GPT-4)을 도입하기로 했는데, 전문가들은 이번 행사가 이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담긴 것으로 예상했다. 구글의 발표를 의식한 행사라는 것이다. 중국 최대 검색엔진 기업 바이두도 조만간 자체 AI 챗봇 '어니'를 공개할 예정이다.

강진에 폭우·폭설까지... '사망 1만명 넘을 수도'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연이어 규모 7.8과 7.5의 강진이 이어지면서 6일 기준 사망자가 2600명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폭우와 폭설, 강풍까지 이어지면서 구조 작업이 난항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튀르키예 동남부와 시리아 일대에 이날 오전 4시17분쯤 규모 7.8의 지진이 발생했다. 오후 1시 24분에는 첫 번째 지진이 발생한 가지안테프와 약 77km 떨어진 카라만마라슈에서도 규모 7.5의 강진이 발생했다. 두 지진은 서로 독립적인 지진인 것으로 터키 당국은 분석하고 있다. 튀르키예 인접국인 시리아, 레바논, 사이프러스 등에서도 지진이 감지됐다.

터키 동남부 지역에 역대급 강진이 이어지면서 피해자는 속출하고 있다. 6일 오후 5시40분(현지시간) 기준 사망자 수는 튀르키예에 최소 1498명, 시리아 810명으로 모두 2300여명을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사망자 규모가 계속 늘고 있다는 점이다. USGS는 보고서를 통해 이번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최대 1만명을 넘어설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USGS는 보고서를 통해 "피해 지역의 인구는 지진에 극도로 취약한 구조에 거주하고 있었다"라며 "많은 사상자와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재난이 광범위하게 퍼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도 "아직도 사상자가 늘고 있다. (피해 규모를) 예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게다가 터키 전역에는 폭우와 폭설, 강풍까지 덮인 상황이다. 알자지라는 "이스탄불과 앙카라에서 (지진 피해지역인) 동부 쪽으로 향하는 비행기가 모두 악천후로 인해 운항이 취소됐다"며 "이 때문에 피해 지역에 접근이 더뎠고 있다"고 전했다. 시리아 반군도 "폭풍우로 기온이 급감하며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며 "재앙적인 상황"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미국인 62% "바이든 입법 성과 없다" 고심 커진 민주당

미국인 3명 중 2명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 성과를 체감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년간의 입법 성과와 경제 회복을 발표하며 재선



출마를 공식화한다는 계획이지만 민심과의 괴리가 커 고심이 커졌다.

워싱턴포스트(WP)와 ABC방송은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그의 성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미국 등록 유권자 62%는 '거의 또는 별로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답했다고 6일 보도했다. '상당하거나 큰 성과를 냈다'는 응답자는 36%에 그쳤다.

바이든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과 인프라법·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제정에 따른 경제 성과에도 미국인들의 체감도는 낮았다. 구체적으로 응답자 60%는 '우리 지역에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지 않았다' '도로나 다리를 개선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바이든 정부가 전기차를 좀 더 저렴하게 만들었다'는 항목에도 56%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42%로 부정 평가(53%)보다 11% 포인트 낮았다. 경제(37%), 이민자 문제(28%), 러시아의 전쟁(38%) 등 핵심 이슈에 대한 평가가 특히 저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미래를 위해 옳은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68%는 '조금 또는 별로'라고 답했다. '아주 또는 상당히 신뢰한다'는 답변은 31%에 그쳤다. 바이든 대통령 성과에 대한 의구심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대선 당시(52%) 때보다 높다. WP는 "재선에서 패배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와 거의 비슷하다"고 평가했다.

미국인 10명 중 4명(41%)은 바이든 대통령 집권 이후 재정적 여유가 없어졌다고 답했다. 이는 1년 전(35%)보다 6% 포인트 증가한 수치로, 관련 조사를 시작한 1986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WP는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7일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 국정연설을 통해 집권 후반기 구상을 밝히면서 자신의 입법 성과를 강조할 계획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주요 인프라 건설 현장을 돌며 국정 성과를 홍보해 왔다. 이를 통해 민주당 차기 대선주자로서의 입지를 분명히 하겠다는 계획이다. CNN은 바이든 대통령이 국정연설 직후 재선 캠페인을 공식 발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찰풍선 후폭풍...美 정계 '反中' 목소리 최고조

중국 정찰풍선 사건이 미국 내 반중 여론을 강화하고 있다.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까지 강경 대응을 요구하며 조 바이든 행정부 압박에 나섰다.



공화당은 5일 바이든 행정부의 늑장 대응을 외교적 굴욕으로 규정하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미 상원 정보위원회 부위원장인 마코 루비오 공화당 의원은 ABC방송에서 "대통령은 카메라 앞에서 이번 일을 초기에 설명할 수 있었는데도 왜 그리 안 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이는 직무유기의 시작"이라고 비판했다. 또 "미 영공의 풍선을 막을 수 없다면 (중국) 대만을 침공하

거나 인도의 땅, 필리핀과 일본의 섬을 빼앗으려 할 때 어떻게 도울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민주당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코리 부커 상원 의원은 "인명 보호에 초점을 맞춘 결정이었지만 애초 미국에서 이런 일은 일어나지 말았어야 한다"고 말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백악관 관리였던 브렛 브루엔은 바이든 행정부가 니컬러스 번스 주중 미국대사를 본국으로 불러들이고 관련자들에게 개별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브루엔은 "바이든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에게 연락해 '같은 사건이 재발하면 원치 않는 비밀을 공개하겠다'고 위협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폈다.

미국에선 앞으로 정찰풍선 문제를 다루는 의회 일정이 줄줄이 이어진다. CNN은 "상·하원 지도부 모임인 8인회(Gang of Eight)를 대상으로 한 중국 정찰풍선 관련 브리핑이 이르면 7일 열릴 수 있다"고 보도했다. 상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비공개 브리핑은 오는 15일 예정돼 있다. 이와 별도로 상원 외교위는 오는 9일 '전략적 경쟁 시대의 미·중 정책 평가'를 주제로 대중 정책 청문회를 개최한다.

러 '2월 대공세' 앞둔 우크라이나 대비태세

우크라이나가 부패 의혹이 불거진 국방장관을 교체하고 러시아군의 '2월 대공세'와 관련한 첩보를 입수하는 등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특히 대공세에 대비해 러시아군의 공격 목표와 시기를 추정하고 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경고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5일 로이터통신을 인용해 올렉시 레즈니코프 국방장관을 경질하기로 했으며, 그 자리에 30대의 키릴로 부다노우 군사정보국장을 임명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측근인 데이비드 아라카미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알리고 텔레그램에 "전쟁은 인사정책의 변화를 좌우한다"며 "전시에는 정치인이 아닌 국방이나 안보에 해박한 사람이 국방부 같은 기관을 이끌어야 한다"고 썼다.

현재 레즈니코프 장관은 우크라이나 국방부 수장으로서는 군 식자재 계약에 지나치게 높은 가격을 지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시 수장 교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다만 레즈니코프 장관은 의혹에 대해 "땀땀하다"며 "결정은 대통령에게 달려 있다"고 밝혔다. 로이터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결정이 서방의 무기 지원 등에 단절이 생기지 않도록 비리 문제를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했다고 봤다.

우크라이나군 관계자는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러시아가 공격 개시를 위한 매우 확실한 첩보를 입수했다"며 "열흘 안에 공격이 올 수 있다"고 밝혔다. 안드리 체르냐크 우크라이나 군사정보국 대변인은 지난 1일 우크라이나 현지 포스트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푸틴 대통령이 3월까지 도네츠크와 루한스크를 모두 점령하라고 자신의 군대에 명령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공동체 진실성 만들때...

(3면에서 계속)

이를 통해 개인은 헌신이나 책임감이 크게 가지지 않으면서 자신이 좋아하는 것과 선호하는 바에 따라 참여하는 커뮤니티를 고르고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른 위험성은 이것이 그룹과 공

동체가 우리 자신의 영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 사용되는 자기 지향적인(self-oriented) 영성에 영합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소비주의적 태도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제자도(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의 이타적인 비전과는 거리가 먼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긍정적인 측면에서 볼 때 종종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우리의 믿음을 유지하려면 우리를 양육하는 영적 공동체를 찾아야 한다. 네트워크로 연결된 사회에서 우리는 다양한 영성, 스타일 및 예배 방식을 가진 전 세계의 다양한 공동체에 참여함으로써 영적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다. 최소한 이러한 현실에 따라 교회 지도자들은 목회자로서 역할과 제자 훈련이 디지털 문화

에서 관리되는 방식 모두에 대해 숙고해야 한다.

지속적이고 폭넓은 대화

디지털 기술은 확립적이지 않다. 다양한 장치, 소프트웨어, 앱 및 플랫폼에는 각기 신중한 고려가 필요한 지원과 제한 사항들이 있다. 더욱이 혁신의 속도와 이

에 대한 인간의 재협상은 우리의 신학적 반응이 끊임없이 재평가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이유로 여기에서 내가 언급한 내용은 교회 내에서 필연적으로 더 광범위하고 협력적이고 지속적인 대화에 대한 작은 기여로 보아야 한다. 내가 분명히 하고자 한 바는 우리가 디지털 시대를 반사적으로(unreflectively)

헤쳐 나갈 수가 없다는 것이다. 디지털화는 무서운 속도로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으며 그 영향은 앞으로 수십 년 동안 교회에 미칠 것이다. 우리는 우리 공동체가 계속해서 번성하고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화해의 역사를 증언하기 위해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타개할 것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다.

선교 안국 그 역사를 찾아서

-8.15 해방 전 한인 선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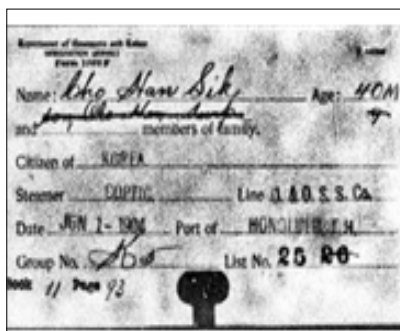
손상웅 목사
(한미교회사연구소 소장)

163. 조한식 (1864-?)

조한식(趙漢植)은 1864년에 한국에서 태어났다. 결혼한 후 그는 황해도 해주군에서 거주했는데 아내를 여윈 후 혼란스러운 가운데 황성신문 등을 통해 하와이 농업 이주를 접했다. 신체가 건강하고 품행이 단정하면 일자리를 얻기가 쉽고, 열흘에 15달러를 지급하면 당시 한화로 57원이었는데 하루 10시간을 노동해도 당시 노동자의 일당에 비하면 높았고, 일요일에는 휴식할 수 있었다. 돌아올 기약 없는 외국 생활에 선뜻 나서기가 어려웠지만, 누구든지 일신이나 가족을 데리고 와서 머물러 살자 하는 자에게 편지를 주선하고, 학교 설립법이 관대하여 모든 섬에 다 학교가 있어 영문을 가르치며 학비를 내지 않아도 뎀에 귀가 솔깃했을 것이다. 1904년에 홀아비가 된 그는 아홉 살 된 아들 원섭을 데리고 하와이 농업 이민을 시도했다. 40세의 그는 아들을 데리고 톱터 기선에 승선하여 그해 6월에 하와이 호놀룰루에 입항했다. 조한식은 하와이섬의 파할라라고도 하는 가우 파할라에 이주하였고, 이곳 농장에서 노동하면서 파할라 한인감리교회에 출석했다.

호누아포 한인감리교회와 파할라 한인감리교회

파할라에 이주한 지 5년이 되던 1909년 3월에 호놀룰루 감리교회에서 제4회 미국 북감리교 하와이 선교연회가 개최되었다. 이 연회에 조한식이 출석하여 지방 전도사 고시에서 88.25점을 받아 통과했다. 그 외에도 조연택과 이선일 등도 비슷한 점수를 받아 고시에서 합격했다. 조한식은 이 연회에서 하와이섬에 있는 호누아포 한인감리교회와 파할라 한인감리교회로 파송을 받았다. 이 연회는 호누아포 한인감리교회에 김윤K를, 파할라 한인감리교회에 양행Y과 김광H를 파송했다. 그해 보고된 바로는 호누아포 한인감리교회는 학습 교인이 15명이었으며, 입교 교인이 11명이었고, 주일학교가 2



조한식의 하와이 이민 서류

곳에 있었으며, 교직원이 7명이었고, 22명이 등록하였으며, 1년 헌금액이 14달러였고, 교회 건물은 없었다. 그리고 파할라 한인감리교회에는 학습교인이 12명이었으며, 입교 교인이 15명이었고, 주일학교가 1곳에 있었으며 5명의 교직원에 13명의 학생이 등록했으며, 1년 헌금액이 16달러였고, 교회 건물은 없었다.

이듬해 3월에 모인 제5차 하와이 선교연회에서 조한식이 지난 1년간 사역한 보고는 작년에 비하면 저조와 성장으로 희비가 엇갈렸다. 호누아포 한인감리교회는 저조했는데 학습 교인이 3명이었으며, 입교 교인이 3명이었고, 주일학교가 1곳에 있었으며, 교직원이 2명이었고, 4명이 등록하였으며, 1년 헌금액이 5달러였고, 교회 건물은 없었다. 그러나 파할라 한인감리교회는 성장했는데 학습 교인이 36명이었으며, 입교 교인이 25명이었고, 주일학교가 2곳에 있었고 75명의 학생이 등록했으며, 1년 헌금액이 15달러였고, 교회 건물은 없었다. 지난 한 해 동안 어린이 세례와 성인 세례를 받은 사람이 호누아포 한인감리교회에서는 한 사람도 없었으나, 파할라 한인감리교회에서는 각각 1명과 8명이었다. 위의 보고서에서 기대할 수 있듯이 하와이 선교연회 존 W. 와드만 감리사는 파할라 한인감리교회가 특별히 믿음이 강하므로 예배당을 신축하길 소망했고, 이는 파할라에는 박KH가 운영하는 한국 학교도 있었기 때문이었다. 본 선교연

회에서 조한식은 지방 전도사 고시에서 고시에 입한 9명 중 박세환과 함께 최고 점수로 90점을 맞아 지방 전도사 2년차에 들어갔다. 그해에도 그는 작년과 같이 호누아포 한인감리교회와 파할라 한인감리교회로 파송을 받았다. 이 연회에서 작년과는 달리 호누아포 한인감리교회에는 권사를 파송하지 않았으나, 작년과 같이 파할라 한인감리교회에 김광H를 파송하였으나 박KH도 파송했다.

그해 5월에 하와이에서 글짓기 대회가 있었다. 그달 25일에 발행된 신한민보는 '우등에 뽑힌 국문품월'이라는 제하에서 글 제목 '바람'에서 우등한 자를 소개했다. 1등 한 명은 호항밀쓰 학교 학생 정영수, 2등 두 명은 파할라 거주 배일진과 호항밀쓰학교 학생 김호연, 3등 네 명은 호항밀쓰학교 학생 박봉렬, 막가월니 거주 이근실, 파할라 거주 박기홍, 리휘 거주 김양식, 4등 8명은 고나 거주 강영소, 리휘 거주 이수, 막가월리 거주 황령하, 호항한인학교 학생 임학봉, 파할라 거주 박주범, 호항 가와이아 학교 학생 강실하, 막가월리 지아 거주 이복녀 그리고 파할라 거주 조한식이었다. 위의 신문에 게재된 조한식의 시는 다음과 같았다. "조이세벳님네야 군세계점점불어 오는곳을알겠다 끝이없시달아나 구름쫓는기운과 우리나라곧가서 남계우는소리가 태극기를날라려라." 그의 시에서 조국에 대한 그리움과 독립을 얻을 수 있다.

1911년 1월에 제6회 하와이 선교연회가 호놀룰루에서 개최하였고, 조한식이 이 선교 연회에 출석했다. 그는 지난 한 해 동안 사역했던 호누아포 한인감리교회에 대한 보고가 없었지만 파할라 한인감리교회에 대한 보고는 있었는데 작년에 비해 절반으로 저조했다. 지난 한 해 동안 어린이 세례와 성인 세례를 받은 사람이 각각 3명과 1명이었고, 그해 1월에 학습 교인이 15명이었으며, 입교 교인이 12명이었고, 주일학교가 1곳에 있었으며, 교직원 7명에 20명의 학생이 등록하였고, 1년 헌금액이 15달러였다. 작년의 기대와는 달리 교회 건물을 짓지 못했다. 이러한 저조에는 한인 노동자의 이동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조한식은 작년에 이어 호누아포 한인감리교회와 파할라 한인감리교회의 지방 전도사로 파송을 받았다. 이 연회에서 파할라 한인감리교회에 김체나S를 권사로 파송했고, 박KH가 파할라 한국 학교로 파송을 받았다. 하와이 한인 이민사를 연구하는 이태희 선생은 조한식이 사역했던 하와이섬의 파할라 한인감리교회도 2000년 말까지 있었다고 한다.

사우스 코나와 노스 코나 한인감리교회

이듬해인 1915년에 모인 제10회 미국 북감리교 제10회 하와이 선교연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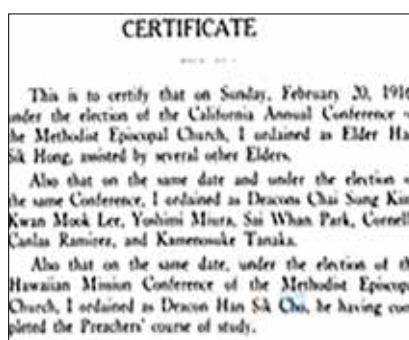
는 조한식을 하와이섬의 흑기나에 있던 사우스 코나 한인감리교회와 홀누알누에 있던 노스 코나 한인감리교회의 지방 전도사로 임명하였고, G. 모토가와와 흥한식과 함께 해외선교 위원회 위원과 리온 L. 루프부르와 C. 마카무라와 함께 성수주일 위원회의 위원으로도 선임하였다.

1916년 2월에 있었던 제11회 하와이 선교연회 첫째 날에 박SC, 박KH, 한명교 등에 이어서 조한식이 사우스 코나 한인감리교회와 노스 코나 한인감리교회에 대한 사역 보고를 하였다. 지난 1년 동안 두 교회에 각각 주일학교가 있었고, 총 3명의 직원과 교사가 있었으며, 등록한 학생은 17명이었으며, 성인은 세례를 받지 않았으나 3명의 어린이가 어린이 세례를 받았으며, 어린이 세례를 받고 입교한 자가 18명이었고, 지난 1년 동안 14명이 학습 교인이 되어 총 14명이 학습 교인으로 등록하였고, 등록한 입교 교인은 총 23명이었으며, 연료와 전기 등 지출한 금액은 총 29달러였다.

둘째 날에 조한식은 지역 전도사의 과정을 완전히 이수하여 집사 목사 곧 준회원으로 선임되어 그날 오후 회무를 마치면서 조한식은 축도 순서를 맡는 영광을 누렸다. 넷째 날 오후 2시에 안수식이 있었다. 감독은 먼저 어린이 5명에게 세례를 베풀고, 이어서 정회원(장로 목사)이 안수 위원으로 참가하여 흥한식에게 장로 목사로 안수한 후 이관목, 박세환, 김재성, 가메노수키 다나카, 요시미 미우라, 코르넬로 라미레즈와 함께 감독이 조한식에게 집사 목사(준회원)로 안수했다.

그리고 위의 하와이 선교연회에서 조한식은 G. 모토가와와 흥한식과 함께 해외선교 위원회 회원으로서 해외선교 보고를 아래와 같이 하였다. '한인 교인이 모국 교회에 후원금을 보냈는데 그들이 자신의 이름이 나타나는 것을 원하지 않으므로 이름을 언급할 수 없으나, 서울에서 사역하는 D.A. 벅커 선교사가 포화한인교보를 통해 호소하여 코할나와 하갈나우 등에 있는 농장에서 일하는 많은 한인 교인이 서울의 가심 지역에서 사역하는 목사에게 80달러를 보조하기로 하고 그 대부분은 지난 한 해 동안에 지급하였다.'

그리고 리온 L. 루프부르와 C. 마카무라와 함께 성수주일 위원회의 위원이었던 조한식은 성수주일 위원회 보고도 다음과 같이 하였다. '기독교인이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함은 특권이 아닐 수 없다. 한 예로 안식일에 다른 종교를 믿는 자와 이람만의 그리스도인에게 전도하고 있다. 부모와 목회자는 자녀에게 주일은 가장 좋은 날이므로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가장 좋은 음식을 먹고, 가장 좋은 책을 읽도록 가르쳐야 한다. 이 안식일이 평일과는 달리 가장 매력적이고 영적인 날이 되도록 도와주어 자녀가 주일이 오는 것



조한식의 준회원 안수증

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모가 주님의 집으로 가자고 권하면 기쁘게 따라나서게 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에 있는 한 날이 다른 천날 보다 더 좋다고 말하게 될 것이다.' 그해에도 조한식은 하와이섬의 노스 코나 한인감리교회와 사우스 코나 한인감리교회로 파송을 받았고, 성수주일 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다.

1917년 6월에 하와이 이민에 따라 나선 아들 원섭이 호놀룰루 제일한인감리교회에서 결혼하였다. 그런데 그의 결혼 서류에 어머니가 한국인으로 임 씨라고 적혀 있음으로 1917년 이전에 조한식이 결혼한 것 같다.

조한식은 1918년 3월에 개최한 제13회 하와이 선교연회에 참석하여 두 교회에 대하여 지난 한 해 동안의 사역 보고를 하였다. 지난 한 해 동안 세례받은 성인과 어린이 세례를 받은 어린이가 각각 5명이었고, 지난 한 해 동안 어린이 세례를 받은 자로서 입교한 자와 학습을 받은 사람이 각각 7명이었다. 지난 2년 전에 성인 세례자가 한 사람도 없었는데 5명이나 되었음을 큰 성과가 아닐 수 없으나 어린이 세례를 받고 입교한 자가 2년 전보다 11명이 적어서 저조했음을 알 수 있다. 등록한 학습 교인이 24명이었고, 등록한 입교 교인이 20여 명이었고, 주일학교는 두 교회에 각각 있었고, 직원과 교사가 총 13명이어서 2년 전보다 10명이 많았고, 등록한 학생은 지난 2년 전보다 거의 두 배가 되는 총 32명이었다. 교인 훈련에 15달러를 지급했고, 기타 수십 달러를 냈다. 그는 그해에도 하와이섬의 노스 코나 한인감리교회와 사우스 코나 한인감리교회로 파송을 받았다. 그런데 1919년 제14회 하와이 선교연회 보고서에는 통계 자료가 없어 그의 선교 업적을 찾을 수 없다.

1919년 제14회 하와이 선교 연회 이후 조한식의 이름이 하와이 선교연회 기록에서 찾을 수가 없다. 그런데 하와이 주재 일본 총영사관이 조사하여 1924년에 본국에 보고한 보고서에는 조한식이 마우이섬 프루네오(브네네?)에 있는 한인교회의 목사로 재임했다고 한다. 그 후 그에 대한 행적을 찾을 수 없다.

damien,sohn@gmail.com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

최고의 동문을 자랑하는 Midwest University School of Theology

본교의 신학대학(원)은 37년 전통의 복음주의적인 초교파 교육기관으로 각 교단을 대표하는 목회자, 선교사, 교수, 기업인, 의사 등 동문들이 현재 전세계 70여개국에서 활발하게 사역하고 있음.

목회자, 선교사, 기독교 지도자를 위한 리더십 전공 Ph.D. 학위

학점,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1. 미국 유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F-1 Visa (SEVIS I-20) 또는 J-1 Visa (DS-2019)
2. 직장과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세계 어디서든지 Online 혹은 집중강의로 학점취득 가능
3. 영어, 한국어 언어에 구애없이 학점취득 가능
4. 타대학에서 받은 학점 최대한 인정하여 편입가능

자세한 사항은 web site 를 방문하거나 이메일 혹은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학문의 : 전화 (636)327 - 4645, 이메일 usa@midwest.edu



Midwest University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www.midwest.edu

Tel : (636)327 - 4645 / E-mail : usa@midwest.edu

기독교 명저로의 초대(75)



이윤석 목사 (NY 부르크린제일교회)



유효정 목사 (한부모 모임 대표)



리차드 백스터(Richard Baxter)의 [회심, A Call to the Unconverted]

3장 회심하지 않은 자에게 주어지는 죽음 (1)

* 교리 1: 악인은 반드시 회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이 불변하는 하나님의 법이다.

이 하나님의 법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은 자신의 죽음을 방지해 줄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을 부인하고 비난하는 것은 자신의 죽음을 서두르는 것이 될 것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법을 판단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의 법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법을 순종해야 하고, 또한 그 법에 의해서 재판 받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1) 성경이 증명하는 이 교리의 진리성

마 18:3; 요 3:3; 고후 5:17; 골 3:9-10; 히 12:14; 롬 8:8-9; 갈 6:15; 벰전 1:3, 23; 2:1 시 9:17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이라고 고백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해야 할 것이다. 할 수 있는 만큼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라. 왜냐하면 여러분은 지옥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자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거짓말하는 자에게로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다. 여러분이 그렇게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경고를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란 말인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들을 들을 수밖에 없다. 비록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복음의 목소리를 들으라고 권유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는 간청하시지 않고 심판을 선고하시는 음성을



발하실 것이다. 여러분은 '악인은 반드시 회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죽으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왜 믿지 않는가?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무지비한 분이 아닐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과 심판을 행하시는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공의를 정당화시켜 주는 두 번째 사실로 우리를 인도해 준다.

2) 하나님의 공의의 정당성

(1) 여러분은 불멸의 영혼을 가진 사람이 불멸의 상급을 약속받고, 끝없는 형벌을 받게 하는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통치 받는 것이 적합하다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법은 영원한 것들에 대한 소망이나 두려움으로 충분히 지배받는 사람의 특성에 적합한 것이다. (2) 여러분은 끝이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영광에 대한 약속이 하나님의 지혜에나 사람의 경우에 적합하다고 인정할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끝이 없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형벌에 대한 위협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가? (3)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어떤 것이 지금

그런 것처럼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내용을 읽게 될 때, 여러분 자신이 이 말씀을 반대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가? 여러분은 여러 가지 죄를 범했기에 소환해서 그분의 말씀이 거짓이라고 소송할 작정인가? 여러분은 하나님을 피고석에 세우고, 여러분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재판장 석에 앉아서 여러분의 변덕스러운 법으로 하나님을 재판하려고 하는가?

(4) 속죄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필요로 할 정도로 우리의 죄가 악하다면, 그 죄에 대한 대가로 우리가 영원히 형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할지라도 전혀 놀랄 일은 아니다.

(5) 만일 귀신들의 죄가 영원한 고통을 받아 마땅하다면,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인가?

(6) 악한 사람들이 가장 선한 사람보다 죄에 대한 선고를 내리는 유능한 재판관이 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아! 우리는 소경이기도 하고 편파적이기도 하다.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충분히 알기까지는 죄의 악함을 충분히 알 수 없다. ① 죄가 망쳐놓은 영혼의 타월성, ② 죄가 소멸시키는 거룩함의 타월성, ③ 이성과 죄가 깨뜨리는 율법의 타월성, ④ 죄가 경멸하는 영광의 타월성, ⑤ 죄가 억누르고 있는 이성의 타월성과 역할, ⑥ 죄가 헌신하기를 반대하고 있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탁월성과 전능하심과 거룩하심. 여러분이 이 모든 것을 충분히 알 때 죄로 인해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을 충분히 알게 될 것이다. 이 외에도 여러분은 범죄자는 너무 편파적이기 때문에 법에 대한 재판이나 재판에 대한 변론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7) 여러분은 거룩하지 않은 영혼이 천국에 적합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가? 아! 슬프다! 그들은 이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릴 수도 없다. 그들은 하나님과 정대대기에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것은 가장 싫어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은 사랑한다. 그렇다면 그들이 어떻게 천국의 복인 하나님을 완전하게 사랑하고 충만한 기쁨 속에서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를 누릴 수가 있겠는가?

(다음 시간에는 교리 1 적용에 대해 생각해 보겠다) yoonsuklee@hotmail.com

한부모 가정사역

한부모(싱글)모임 인도자를 위하여(14) 우는 사자같이...

한부모 모임 인도자는 참가자들이 반듯하게 살고 있는지 관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대다수가 노년에 가까운 중년 일진대 무슨 관리냐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탁한 문화의 흐름 속에 특별한 느낌없이 잘못 흘러갈 수 있는 경우가 있는 만큼, 목자가 양떼들이 바른길로 가도록 인도하듯이 늘 신경쓰고 돌봐야 한다는 것이다.

요사이 거의 모든 모임에 서로 간의 정보 교환 및 신속한 연락망을 위해 그룹카톡방이 있듯이 저희 또한 있습니다. 얼마 전 오랜 기간 우리 사역을 신실하게 돕고 있는 분이 올린 비디옷을 열어보게 되었습니다. 기도(The prayer)라는 유명한 성악곡과 함께 기도하는 영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기도의 모습이 교회에서의 기도자의 영상에서 시작하여 불교 승려들이 풀지어서 합창하는 영상과 함께 노출이 심한 옷을 입은 여인이 풀어얇은 모습이지만 결코 반듯한 자세가 아닌 채 두 손을 모으고 있는 사진들이었습니다.

섬뜩한 느낌이었습니다. 사악한 백이 천사의 탈을 쓰고 있는 듯한... 종교 다윈주의, 곧 아무 신에게든지 기도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메시지를 그 비디옷을 통해 읽었다고 한다. 지나친 것일까요? 목자를 든 짐승 아리따운 비구니들이 줄서서 손을 모으고 있는 모습으로 끝났다면 그러려니 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 이상이었습니다. 별로 예민하게 느끼지 못한 채 그저 그 성악곡이 좋아서 다른 멤버들과 공유하고자 올렸을 수도 있는 그분의 심정을 고려해, 정기모임 때, '우리는 늘 깨어서 분별하고자 애써야 된다'는 정도로 짚고 넘어갔습니다.

독은 작은 구멍 하나로 무너진다는 말이 있지요. 어떻게 보면 싱글들은, 부부가 티격태격하며 함께 사는 경우보다 혼자 지내는 이유에서 당연히 결핍도 갈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행여라도 기독교인이라고 자처하면서도 그런 영상 속으로 들어갈 경우 깊은 우물같이 입을 벌리고 있던 마귀는 기다렸다는 듯이 끌려갈 것입니다. 최근 스마트폰은 그야말로 스마트해서 사용자의 취향을 기막히게 파악해 자동적으로 비슷한 부류 아니 더 심화된 영상들이 뜨게 할 것입니다. 결국 그러다 보면 이름뿐인 기독교인으로 변할 수도 있을 테니 심히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더군다나 싱글들은 남을 재밌게 살 때 혼자서 외로움과 싸워야 하는 불이익을 겪기에 그만큼 더 반듯한 신앙생활을 통해 좀 더 복된 삶을 누리다가 천국 가야 할 텐데 말입니다.

성경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벰전 5:8,9)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인도자는 늘 긴장하여 참석자들이 행여라도 어두운 문화의 흐름 속에 빨려 들어가는 일이 없이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hyojungyoo2@yahoo.com

Worldwide Church Directory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listing various churches across different regions like NY, NJ, Hawaii, and Mexico, including names of pastors and contact information.



목회서신



박성규 목사 (주님세운교회)

가장 성숙한 감사

플로리다주에 당시 세계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이 있었... 1981년에 130세로 죽은 찰리 스미스씨

라는 분이었습니다. 그에게 130년의 세월은 마치 실에 끼워놓은 진주알처럼 하나하나 모두 고통으로 점철된 세월이

있었습니다. 노예의 신분이었... 주인의 천대와 멸시속에 어릴 때 부모와 헤어져 부모의 사랑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살아온

나날이었습니다. 조금 자라자 미국 남부와 서부를 헤매며 노예로 이리저리 팔려다니며 매 맞고 죽도록 일하는 모욕과 천대의 나날을 살아야 했습니다. 굶주리고 병들고 죽을 고비를 20번 이상 넘겼다고 합니다. 그토록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낸 스미스씨는 임종을 몇일 앞두고 그를 방문한 스티븐스 목사님 앞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흑인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드립니다. 노예의 신분이었음을 감사드립니다. 때 맞고 고통당한 것도 감사드립니다. 고통스러운 노동생활을 한 것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감사 중에 가장 큰 감사는 저에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천국가에 해주시고 130년 그 많은 고통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주님께서 한번도 저를 곁을 떠나지 않고 함께 해주신 일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며 눈물을 흘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내 곁에 항상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흑인 스미스씨의 기도를 들으며 스티븐스 목사님은 위로하러 갔다가 오히려 큰 감동을 받았고 "이런 신앙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큰 신앙이다. 이런 신앙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신앙이다"고 외쳤던 것입니다. 내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헤아려 감사할 뿐만 아니라 어려운 역경속에서도 감사하는 감사는 성숙한 감사입니다. 그 역경과 고난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히 13:15에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

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최고의 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입니다. 사랑의 주님께서 늘 함께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드리는 감사입니다. 요즘 우리들은 사랑을 둘러봐도 감사할 일이 별로 없는 힘든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성숙한 감사, 짙은 역경 속에서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하심을 믿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런 감사로 세상을 이기고 날마다 행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songkpk@hotmail.com



미주한인의날 120주년 기념식 평가회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미주한인의날 120주년 기념식 평가회 "120주년을 맞이한 지금부터 새롭게 시작하자"

미주한인의날 120주년 기념식 평가회가 2일(목) 오후 4시 30분 LA 라마다호텔에서 있었다. 이병만 회장 사회로 시작된 평가회는 최학량 목사가 개회기도를 했으며, 국민의례가 있었다. 이어 이종용 목사가 격려사를 했다. 이종용 목사는 "미주한인 이민 120주년에 모세가 생각났다"며 "지난 120년 동안 우리 이민선배들이 수고를 많이 했다. 여러 가지로 대한민국이 아름답게 전 세계에 아름다운 영향력을 보이고 있다. 120주년을 맞이한 지금부터 새롭게 시작한다. 그 일을 여호수아 통해 가나안땅을 점령했듯이 나이가 많으신 분부터 젊은 청년까지 이곳에 있다. 우리를 하

나남께서 쓰실 것 이다. 우리는 뒤에서 밀어주고 우리 1.5세 2세 3세들이 달려갈 것"이라 말했다. 이날 참석자들이 미주한인의날 행사에 대한 소감을 말했다. 최석호 전 거주위원의원은 "우리선조들이 이루어놓은 업적을 기리고 우리는 축복을 누리는데 감사하며 기억해야 한다. 120주년 이민역사를 기념한 것이 남가주에 있는 한인들의 큰 업적이라 생각한다.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에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다. 한사람의 한인의 목소리가 없다면 슬픈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합하여 우리목소리를 대변하는 자를 지원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영선 전 부에나파시장은 "많은 한인들의 지원으로 최초여성 시장이 될 수 있었다. 한인들의 정치력은 미미하다. 미주한인의 날 120주년을 축하한다"고 말했다.

미주한인역사를 빛낸 위인 16인 책의 대표저자인 이상명 총장은 "이 책이 나오기까지 2년이 걸렸다"며 "이민역사를 회고해보니 우리는 빛진 자였다. 우리 이민 선조들이 너무나 많은 수고와 피와 땀을 흘렸다. 그들의 헌신과 수고로 나 자신이 유학생으로 공부할 수 있었고 현존할 수 있었다. 이 책을 기획한 것은 자녀세대에 나눠주고 선조들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위대한 역사를 계속 이어가는 후세들이 나오길 원하는 마음으로 기획했다. 바라건대 재정이 마련되면 영어로 번역하여 나오기를 소망한다. 기억되지 않은 역사는 사라진다. 영어로 번역되어 후세에 전달되고 우리 한인 이민역사가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고 빛나는 역사를 만드는 작은 디딤돌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잔리 시의원에게 공로패를 증정했으며 파바 멤버들에게 공로장 전달했다. 피오나 마(캘리포니아 재무부장관) 감사장을 이병만 한국인 미미송 김영길에게 전달했다. 그리고 박영남 목사에게 카운티 공로패를 전달했다.

(박준호 기자)

바리톤 김정호 연주회 성황리에 열려

연주회 수익금... 우크라이나 선교후원금으로 전달

바리톤 김정호 전도사 연주회가 가스펠교회에서 4일(토) 오후 6시30분 성황리에 열렸다. 가스펠교회(담임 김병규 목사)와 주백성교회(담임 김성규 목사) 공동주최로 열린 연주회는 총 24곡으로 구성된 슈베르트의 '겨울 나그네' 전곡을 독일어 원어로 불렀으며 이날 연주회장을 찾아온 관객들은 잔잔하게 전달되는 그의 공연을 감상했다.

바리톤 김정호 전도사는 총신대학교 교회음악과 재학시절 제3회 CBS 복음성가제 대상수상과 함께 복음성가 가수로 활동했으며 졸업 후 독일로 유학하여 Dermond 음악대학원에서 예술 가곡과 오라토리오, 프랑크푸르트 음악대학원에서 오페라과를 졸업하고 2004년부터 2022년까지 18년 동안 세계 최고 오페라 극장인 오스트리아 비엔나 국립 오페라 극장 상임단원으로 활동했다. 김 전도사는 한국인 최초로 비엔나 슈베르트 생가에서 '겨울나그네' 독창회를 개최하여 정확한 독일어 디렉션 뛰어난 음악적 해석을 바탕으로 현지인들에게 큰 호평을 받은 바 있으며 이날 연주회에서도 그의 실력이 과감 없이 전달되어 관객들에게

감동을 안겨주었다. 이날 김전도사의 연주회에 피아노 반주를 맡은 남현선 피아니스트는 주백성교회 김성규 담임목사의 부인이다. 그는 총신대학교 교회음악과에서 피아노를 전공했으며 아주사피서픽대학교에서 피아노 퍼포먼스를 전공했다. 이후 USC 대학원에서 Keyboard Collaborative Arts를 전공했다. 현재 뮤직 아카데미에서 후학들을 가르치고 있다. 가스펠교회 김병규 목사는 "바리톤 김정호 전도사 연주회에 많은 분들이 찾아오셔서 감사하다"



바리톤 김정호 연주회가 마친후 바리톤 김정호 전도사와 남현선 피아니스트가 인사하고 있다

며 "오늘 연주회에 찾아온 많은 분들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라하브라에 위치한 저희교회는 오렌지카운티에서 공간 외진 곳에 위치했지만 공연을 하기에 알맞은 곳"이라며 "김정호 전도사의 단독 공연임에도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길 보면 좀더 다양한 이벤트를 기획해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연주회의 수익금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현지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을 위한 선교후원금으로 보내지게 된다.

(박준호 기자)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

Table with 6 columns listing churches: 갈보라장로교회, 다민족교회, 몽고메리교회, 벅스카운티장로교회, 벨렐교회, 보스턴장로교회, 새생명한인교회, 알칸사 제자들과교회, 앵커리지열린문교회, 영생장로교회, 킬린은누리교회, 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 타코마한인장로교회,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동부교계 기사판

뉴욕교협, 목회자 및 평신도 지도자 세미나

뉴욕교협(회장 이준성 목사)가 주최하는 목회자 및 평신도 지도자 세미나가 2월 13일(월) 오후 7:30, 14일(화) 오전 10시, 오후 2시 뉴욕베데스다교회(김원기 목사 시무), 15일(수) 오후 7:30 성공회뉴욕한인교회(배요셉 신부)에서 열린다. 감사 박성규 목사(주님세운교회)로 주제는 “다가올 시대를 예비하라”이다.
▲문의: 929-465-1415, 845-848-2013(총무)

뉴욕가정상담소 ‘봄학기 경제자립 프로그램’

2월에 다시 시작하는 봄학기 경제자립 프로그램은 재봉클래스, 영어클래스 및 컴퓨터수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2월 둘째 주부터 15주 과정으로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들은 취업을 원하는 여성분들이라면 나이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영어수업은 초급, 중급, 고급반으로 나뉘어 진행될 예정이고, 봄학기 컴퓨터 수업은 취업에 필요한 구글 드라이브나 엑셀 등을 중심으로 가르칠 예정이다.
▲문의: Helen Jin 917-887-9173, helen.jin@kafsc.org

KCS(한인봉사센터) 무료 유방암 검사

KCS(한인봉사센터)에서 무료 유방암 검사가 2월 21일(화) 오전 9시~오후 4시 40분 베이사이드장로교회에서 실시한다.
▲문의: 917-285-4164, 347-348-3233

뉴욕실버선교회 학교 훈련생 모집

뉴욕실버선교회(회장 김재열 목사)에서 제35기 훈련생을 모집한다. 기간은 2월 28일(화)~5월 2일(화)까지 10주간이며 개강예배는 뉴욕장로교회(담임 문덕연 목사)에서 28일(화) 오후 6시 30분에 열린다. 선교에 관심 있으신 모든 분이 대상이며 등록비는 \$100이다. 특전: 선교지 파송 사역가능, 수료증 발급
▲문의: 훈련원장 김경열 목사 917-963-9356, 사무총장 이형근 장로 646-220-8222

KPCB 유아 선교원

베이사이드장로교회에서 주관하는 KPCB 유아 선교원은 2023년 3월부터 팬더믹 이후 처음으로 개강한다. 대상은 2살~3살(3K 가가전)이다. 자세한 내용은 로비에 비치된 등록서를 참고하면 된다. 담당자는 최현숙 전도사이며 문의 및 등록은 임소자 전도사이다.
▲문의: (718) 229-0858

ACE 월간 집회(LIVING WATER) 준비 기도회

다음 세대 사역단체 ACE 집회사역 위원회에서는 부모세대와 사역자들을 위한 월간 집회를 위한 준비 기도회를 2월 19일(주일) 오후 5시에 뉴욕 천성장로교회(담임 신두현 목사)에서 부모세대와 사역자들을 대상으로 가질 예정이다.
▲문의: 정병길 목사 989-971-2877, 장규준 목사 646-266-0039

뉴욕새교회, 아마존 선교기금 후원 음악회

뉴욕새교회(담임 이성희 목사)는 아마존 선교기금 후원을 위한 제시우 & 앤드류 김 교수 초청 듀오 콘서트 음악회를 2월 12일(주일) 오후 5시에 개최한다. 뉴욕미션콰이어와 색소폰리스트 차정호가 찬조 출연할 예정이다.
주소: 1 Willow St. Roslyn Heights, NY 11577
▲문의: 뉴욕새교회 917-921-3310

뉴욕우리교회, '제1회 독실 민족 사생 대회' 개최

뉴욕우리교회(담임 조원태 목사)가 다음 세대 정체성 확립을 위한 제1회 독실 민족 사생 대회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2월 25일(토) 오후 2시에 뉴욕우리교회 여명홀에서 개최한다. 작품주제: 한반도의 과거 삼일 독립 운동, 미래의 평화 통일 작품: 시, 산문, 그림일기, 수필, 그림 등 (한글, 영어 모두 가능) 접수: 홈페이지(mywoorichurch.org)에서 신청서를 다운 후 작성하여 이메일(faithchurch5371@gmail.com)로 2월 19일(주일) 오후 5시 까지 제출
▲문의: 뉴욕우리교회 한국학교 교감 조유경 646-427-3245



부흥회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했다

동부개척장로회신학교 봄학기 개강부흥회 및 Th.M 강의

“너를 부르신다” 권호 목사, 임도균 목사 초청

동부개척장로회신학교(학장 김성국 목사)는 2023년 봄학기를 맞아 개강부흥회 및 Th.M 설교학 강의를 1월 31일(화)~2월 3일(금)에 한국합신대 교수 권호 목사와 한국침신대교수 임도균 목사를 강사로 초청하여 “너를 부르신다(마태복음 4:19-20)”라는 주제로 열었다. 강사 권호 목사와 임도균 목사는 “본문이 살아있는 설교” 공동대표이기도 하다. 임도균 목사는 2월 1일(수) 개강부흥회 및 쾨츠장로교회 재직수련회 저녁 집회에서 “참된 예배자로 부르신다(이사야 6:1-8)”라는 주제로 설교했다. 임 목사는 “코로나 이후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의 예배가 위축 되었는데 우리는 참된 예배자로서 예배

의 자리를 회복해야 한다. 참된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하며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 받기 위해 예배의 현장을 회복하고, 담대히 믿음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된다”라고 설교했다. Th.M 강의는 “현대 내러티브 설교의 철학과 기법”이라는 주제로 4일간 세미나가 진행됐다. 본 세미나에서 권호 목사와 임도균 목사는 현대 내러티브 설교의 신학적 기초와 철학, 내러티브 장르의 특성 및 설교 작성법을 강의했으며, 설교 전달 기술 실습과 참석자들의 설교 클리닉을 진행했다.
(김재상 기자)

뉴저지교협, 호산나청소년대회 2023 개최

400명가량 참석, 청소년들을 위한 비전 제시

뉴저지교협(회장 박근재 목사)은 10년 만에 호산나청소년대회를 2월 3-4일(금-토)에 뉴저지침빛교회(담임 황주 목사)에서 개최했다. 혼탁해져 가는 세상에서 오직 복음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청소년들이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개최된 이번 호산나청소년대회는 약 400명에 가량이 참석하여 Jay Choi(웨스트힐장로교회 소속, CA)목사를 강사로 말씀을 전했다. NJYPN United Praise Team이 찬양인도를 맡았다. 강사 Jay Choi 목사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

하는 삶을 통해 청소년기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상 가운데 승리할 것”이라며 청소년들을 위한 비전을 제시했다. 호산나청소년전대회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전도와 신앙을 통한 비전 제시를 목적으로 뉴저지교협의 주최 아래 앞으로도 매년 열릴 예정이다.
(정리: 김재상 기자)



월드허그재단과 뉴욕엘피스선교회는 MOU를 체결하고 있다

월드허그재단, “설(Lunar New Year) 축하 행사” 뉴욕엘피스선교회 MOU 협력 체결

월드허그재단(이사장 김명순)은 2월 1일(수) 오전 11시 30분 한식당 산수감산2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설 축하 행사’ 및 ‘입양인신분 살리기 운동’을 소개했다.

최재복 장로(이사)의 지도로 시작된 기자회견에서 오는 10일에 열리는 ‘설 축하 행사’에 관해 “월드허그재단이 팬데믹 이후 활동을 재개하면서 본격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행사의 주제는 ‘입양인 신분 살리기 운동’을 합쳐 펼쳐나가자는 것으로 토티베라 회장이 특별히 계획하고 준비한 비전의 뜻이 있다”고 말하며 “입양인 신분 살리기 살리기 운동뿐만 아니라 한인사회를 위한 소셜서비스, 하우징서비스, 이민서비스 등을 함께 추진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명순 이사장은 “Lunar New Year 이라는 이름으로 행사를 할 수 있고 아시아인 설날을 함께 할 수 있어 감사하다”며 “행사 자체가 설날 잔치이기 때문에 주류사회에 있는 모든 분들과 우리 교민들이 함께 어울리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어둠 속에 있는 입양아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함께 해 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월드허그재단 홍보대사 서미라 대표는 이날 행사에 대해 “1세대 2세대 3세대가 모두 함께 그리고 한국을 사랑하는 모든 타인종까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월드허그재단과 뉴욕 엘피스선교회(이사장 이상호 장로)는 MOU를 체결했다.

월드허그재단은 지난 팬데믹에 마스크 70만 개와 손세정제 등을 제공했으며, Food box 6000개를 나누는 나눔 행사를 한 유일한 단체이다. 뉴욕엘피스선교회는 2013년 비영리선교단체로 설립됐고 지난 팬데믹 기간동안 마스크 16만 개 및 손세정제 등을 공급하고 양로원을 섬기며 특히 노숙 쉼터를 섬기고 있다. 이제 월드허그재단 행사 활동을 협력하여 뉴욕엘피스선교회와 월드허그재단은 효과적으로 이웃을 찾아가는 일을 계획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어려운 이웃을 살피고 보살피는 활동을 하므로 교회와 크리스천의 이미지를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되며 전도와 선교의 도구로 삼고 있다.
(홍현숙 기자)



호산나청소년대회에서 NJYPN United Praise Team이 찬양인도를 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난민구호 활동 보고 및 후원금을 전달하고 있다

미주기아대책, 우크라이나 난민구호 활동 보고

‘우크라이나 난민 따뜻한 겨울나기 프로젝트’

미주기아대책(KAFHI)은 2월 3일(금) 오전 11시에 후러싱세일교회(담임 김정호 목사)에서 ‘우크라이나 난민구호 활동 보고’를 위한 기자회견을 갖고 우크라이나의 전쟁 상황 보고 및 그간의 구호 활동과 앞으로 어떻게 이 구호 활동을 진행할지를 소개했다.

국제기아대책기구 사무총장 정승호 목사는 “전쟁 직후, 우크라이나 피난민을 위해 큰 노력을

이용하여 필요한 물품과 쉼터를 지원했고 그중에 고려인들은 한국으로 보내는 일을 지원했다. 아이들에게는 정서적인 안정감을 중요하게 때문에 예쁜 학용품 준비하여 전달했다”고 보고했다. 또한 “이러한 긴급 보호가 끝나면 구호개발로 넘어가서 거주지 재정착을 지원하고 전쟁의 가장 피해가 많은 여성과 아동들을 위한 회복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정착이 되고 난 후 일상 복구 지

원을 계획하고 있다”며 “그러나 전쟁이 지속되면서 긴급보호가 계속되어야 함을 느끼고 현장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는 겨울을 나는데 필요한 이불세트와 긴급구호식량을 요청했다.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기 위해 2천 가정의 이불 지원과 겨울 동안 먹을 기초식량 키트를 마련하기 위해 총 25만불 정도의 프로젝트를 작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후러싱세일교회는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위해 25,000불을 미주기아대책에 전달했다. 국제기아대책기구는 1972년 레드 워드 박사에 의해서 시작된 국제적인 선교구호기구이다. 미주기아대책은 미주한인들 중심으로 1996년에 시작된 단체로 2002년 재설립되어 지금까지만 20년 넘게 미주 한인들의 마음을 모아서 전 세계의 복음과 빵이 필요한 곳들을 위한 선교적인 구호 활동을 하는 단체이다. 이 단체 후원은 Check Mailing / KAFHI, 411 Kingston Ct, Mt Prospect, IL, 60056 Pay to KAFHI, Memo 우크라이나 이불 프로젝트로 하면 된다.
(홍현숙 기자)

구독신청서

미주크리스천신문의 정기구독을 신청하며 1년 구독료를 동봉합니다.

★ 1년 구독료	미국.....	\$100	유럽.....	\$240
	캐나다.....	\$130	남미.....	\$240
	한국 및 동남아시아.....	\$240	아프리카.....	\$240

신청 유형	<input type="checkbox"/> 본인구독 <input type="checkbox"/>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냄	
구독자 이름 (혹은 후원자이름)	한글: _____	목사 <input type="checkbox"/>
	영어: _____	평신도 <input type="checkbox"/>
배달 주소	_____	
전화/Fax	() ()	
★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내는 경우에는 받는 분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받는분 이름	한글 _____	영어 _____
전화번호/Fax	() ()	() ()
배달 주소	_____	
교회/기관명	_____	

▶ E-mail로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E-mail: nychpress@gmail.com

신청일자: 20 ____년 ____월 ____일 신청인서명: _____
★ 저희 미주크리스천신문을 구독(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A: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213)674-7982, (323)665-0009
E-mail: lachpress@gmail.com

■ N.Y: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E-mail: nychpress@gmail.com

KAPC 남가주 북가주노회 및 북미주서노회 간담회 열어

“47회 총회... 예배, 축제, 위로, 계승의 장이 될 것”

미주 한인 예수교장로회(KAPC 총회장 홍귀표목사) 남가주 6개 노회, 북가주노회 및 북미주서노회 ‘총회장 간담회’가 1월30일~31일 양일에 걸쳐 열렸다.

30일(월) 오후 6시 뉴크리에 이션교회(담임 김관중 목사)에서 열린 남가주 6개 노회 연합 간담회는 1부 예배와 2부 간담회로 진행됐다. 안병권목사 사회로 드려진 예배는 엄영민 목사(증경총회장) 기도, 홍귀표 목사 설교, 오세훈 목사(직전총회장) 축도로 진행됐다. 홍귀표목사는 ‘그리스도 안에서 동역자 된 기쁨(롬 16:3-10)’이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홍목사는 “귀한 사역자들과 총회를 섬길 수 있음이 기쁘고 감사하다”며 “현지를 다니면서 느낀 것 중,



KAPC 남가주 6개노회 연합 간담회를 마치고 기념촬영

같은 신앙과 같은 교리와 같은 개혁주의 안에 한 믿음으로 동역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고 귀한 자산이고 기쁜 일임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또한 “총회와 노회, 그리고 당회가 필요한 이유는 동역을 통해서만이 성령의 말씀을 최대한 주관성

을 줄이며 전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47회 총회를 준비 중인데 있다. 노회 산하 동역자들이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동역하여 뉴욕에서 총회를 열 때 총회가 새롭게 부흥하는 놀라운

(박준호 기자)



OC전도회연합회 제413차 조찬기도회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OC전도회연합회 제413차 조찬기도회

“믿음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

오렌지카운티기독교전도회연합회(회장 신용 집사) 제413차 조찬기도회가 4일(토) 오전 10시 에반젤리아대학교 채플실에서 열렸다. 신용 회장 사회로 시작된 조찬기도회는 신동직 총무가 대표기도 했으며 추석근 목사(풀러톤 선한뜻교회 담임)가 ‘말라버린 무화가 나무(마 21:18-22)’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추석근 목사는 “믿음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다. 또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처한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위력을 발휘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추 목사는 “OC전도회연합회 회원들이 기도모임을 할 때마다 주의능력을 의지하고 역

사하실 결과를 기대하고 주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가 되었으면 한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교계와 이민사회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불씨가 되고 열매가 되기를 축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추석근 목사가 중보기도를 인도했다. 중보기도는 한국, 미국과 세계평화회복을 위해, OC지역사회 및 교회와 목회자, 해외 선교사를 위해, 그리고 OC전도회연합회의 2023년 사역과 회원들의 건강을 위해 등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했으며 이소연 이사가 마무리기도했다. 이날 예배는 추석근 목사 축도로 마쳤다. 한편 3월 기도모임은 OC지역 단체들의 리더들과 함께 기도회를 갖게 된다.

(박준호 기자)

미주선교 50주년 하와이 성결인대회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는 5가지 자세 제시

미주성결교회 창립 50주년 기념 ‘하와이 성결인대회’가 지난 1월 27~29일 하와이 갈보리교회(제키 카오우 목사)에서 열렸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3년 만에 처음 열린 성결인 대회는 갈보리교회 찬양단의 힘 있는 찬양으로 예배의 분위기를 깨웠고, 전 총회장 조일래 목사(목자재단 이사장, 수정교회 원로)가 설교에 나섰다. 조 목사는 ‘먼저 하나님의 소원’이란 제목의 설교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며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데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목사는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는 5가지 자세도 권면했는데 △하나님께는 순종하고 △마귀는 대적하고 △목회자들에게 절대 협력하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자신

은 희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 차례 열린 집회에서 제키 카오우 목사는 “코로나 기간에 느슨했던 신앙을 조이고, 그동안 추구했던 방향과 목표를 재확인하는 은혜로운 집회였다”고 말했다.

미주총회 총무 김시은 목사도 성결인대회에 참석해 한국 목자재단과 갈보리교회 성도들을 격려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김 총무는 “이렇게 멀리까지 와서 성전 리모델링과 성결인대회를 인도해주셔서 감사하다”면서 리모델링 후원금 등 6,300달러를 전달했다.

올해 미주성결교회 창립 50주년 행사가 미국에서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목자재단은 미국 한인 이민교회의 재황성화와 성결교회의 정체성을 드높이기 위해 하와이 리모델링 사업 및 성결인대회를 마련했다.

(정리: 박준호 기자)



남가주 부흥운동 발생지 탐방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 첫 참가자들이 갈보리채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부교계 게시판

라스베가스 갈보리교회 부교역자 청빙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소속 라스베가스 갈보리교회(담임 조은철 목사)에서 신실하게 동역할 수 있는 교육목사 또는 교육전도사와 음악목사나 음악전도사를 청빙한다.

▲ 문의: drjho@hotmail.com

베델교회 셀 부흥회

베델교회(담임 김한요 목사)는 셀 부흥회를 10일(금)과 11일(토) 양일간 개최한다. 강사는 김인규 목사(울릉도 비전교회 파송목사)이며 일정은 10일(금) 오후 7시30분, 11일(토) 오전 6시이다.

▲ 문의: (512)947-7291

토랜스제일장로교회 좋은성품 가정세미나

토랜스제일장로교회(담임 고창현 목사)는 좋은성품 가정세미나를 17일(금)과 18일(토) 양일간 개최한다. 강사는 이영숙 박사(좋은나무성품학교 대표, 한국성품학회 학회장)이며 일정은 17일(금) 오후 7시부터 8시30분, 18일(토) 오전 9시30분부터 12시30분까지이다.

▲ 문의: (310)618-2222

Welove 박은총 대표 찬양간증집회

선한창지교회(담임 송병주 목사)는 Welove 박은총 대표 찬양간증집회를 12일(주일) 오후 1시30분에 갖는다.

▲ 문의: (626)913-6611

오렌지한인교회 은혜찬양콘서트

오렌지한인교회(담임 피세원 목사)는 은혜찬양콘서트를 ‘가장 귀한 삶’이라는 주제로 18일(토) 오후 7시에 갖는다.

▲ 문의: (714)871-8320



포틀랜드영락교회 창립59주년 감사예배에서 이재환 선교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포틀랜드영락교회 창립59주년 감사예배

“선교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하는 것”

포틀랜드영락교회(담임 박성하 목사) 창립59주년 감사예배가 5일(주일) 예배시간에 거행됐다. 박성하 목사는 “저희 교회가 창립 59주년이 되었다. 수없이 많은 교회가 창립되고 사라졌지만 59주년동안 영락교회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린다”며 “감사한 것은 귀한 보석 같은 교회 59주년 영광을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하다”고 말했다.

찬양팀의 경배와 찬양 인도와 이충원 장로 인도로 시작된 11시 예배는 이충원 장로가 기도했으며 박성하 목사가 성경봉독을, 엘리웃 장로 찬양단의 특송후, 호산나 찬양대가 찬양했다. 이어 이재환 선교사(킵 미션 대표)가 ‘2:4:1의 신앙(행 18:18)’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이재환 선교사는 “많은 사람들이 선교를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선교라는 것은 특별한 사람들이 특별하게 부름 받아 특별하게 하는 사역이 아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하는 것”이라 말했다. 이 선교

사는 “한국교회가 마이너스 성장이 된지 30주년이 되었다. 교회에서 빈자리는 채워지지 않게 된다. 이는 이민자의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이라 말하고 “한인교회 목회자들이 차세대라는 말을 많이 쓴다. 하지만 차세대가 있을까? 한국말로 예배드리는 한국교회가 있을까? 숫자부흥을 꿈꾸지 말자. 이미 우리 후손은 영어가 주 언어이며 우리 1세대들과 다른 문화로 생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영락교회가 59년간 아름답게 예배드렸지만 물려줄 2세가 있을까?”라고 질문하며 “지난 이민교회 역사를 볼 때 미국의 많은 교회들이 미국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드렸던 한국교회에 교회를 그냥 넘겨주었다. 지금세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지금은 강화되는 시대, 일당백이 되는 시대에야 한다. 59년된 성도들도 좋은 미국에서 신앙생활 할 때 받은 은혜보다 더 섬기고 사랑하고 전하고 기도하고 승리는 일꾼들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예배는 박성하 목사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영상취재)



조일래 목사가 성결인대회서 설교하고 있다



졸업생대표 에스더정 전문강사가 졸업장을 받고 기념촬영

생터지역원, LA 5기 전문강사스쿨 졸업

최우수상 최정은, 우수상 이현진, 이경숙, 모범상 김옥

생터지역원(원장 이에실) LA 지부(지부장 김덕수 목사) 5기 전문강사스쿨 졸업식이 4일(토) 오후 3시 하늘소망교회에서 대면과 비대면으로 진행돼 41명의 새로운 전문강사를 배출했다.

졸업식에 앞서 김홍철 목사(LA 1기) 인도로 드려진 졸업 감사예배는 정재현 장로(남가주 2기, 지부상임고문) 기도, 김덕수 목사 설교, 장재영 목사(LA 1기) 축도로 진행됐다.

김덕수 목사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나라’(딤후 2:9)의 제목으로 “2020년 3기 전문강사스쿨을 시작할 때 초유의 사태를 직면하고 모든 것이 중단 되는 듯, 아무 것도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시기를 지냈지만, 스쿨은 중단되지 않고 여기까지 왔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미주 전역을 넘어 세계로 확장되는 것을 눈으로 보았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고 생명이기 때문이다. 거룩한 부담감을 안고 하나님 말씀 앞에 진실함으로 서서 진리를 전하는 권서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달려라”고 말씀을 전했다.

이어 진행된 졸업식은 김덕수 목사 학사보고와 졸업생대표 정에스더에게 졸업장과 전문강사 메달을 수여했으며 성적이 우수한 이들에게 상장을 수여한 뒤, 백성환 전도사(미주 권역장)의 축사와 박준자 권사(남가주 1기 EL강사)격려사가 있었다. 본 학기 수상자는 △최우수상 최정은 △우수상 이현진, 이경숙, △모범상 김옥 전문강사. LA 5기 전문강사 스쿨은 지난해 9월 초에 개강하였으며 45명이 등록하였으나 41명이 졸업했다. 2023년에는 LA 6기가 오픈될 예정이다. 자세한 것은 213-500-2948로 문의하면 된다. (이성자 기자)

남가주 ‘부흥성지 순례기도회’ 발족되다

그리피스천문대에서 LA 시가지를 바라보며 기도회

남가주 지역 부흥성지를 순례하는 독특한 순례기도회가 출범했다. 남가주는 1906년 ‘아주사 부흥운동’의 진원지일 뿐만 아니라 미국 역사 속에 유명한 기독교부흥운동이 태동한 지역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런 부흥운동의 현장을 탐방하며 미국의 영적 재도약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부흥성지 순례기도회가 지난 1월 28일 오전 8시 주님의 영광교회에서 80여명의 목회자, 선교사, 그리고 평신도 지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 순례기도회는 강순영 목사(전 JAMA 대표, 청교도 신앙회복운동본부 운영위원장)와 강태광 목사(World share USA 대표, 청교도 신앙회복운동본부 사무총장)가 주도하여 개최됐다.

참가자들은 2대의 대형 버스에 나눠 타고 남가주에 있는 20세기 미국과 전 세계를 흔든 중요한 부흥운동의 진원지(부흥성지)들을 돌아보았다. 아주사 부흥운동의 진원지를 비롯하여 빌리그래함의 첫 대중 집회를 가졌던 천막집회 현장, 대학생 선교회(CCC) 운동의

진원지, 예수전도단 운동의 진원지, 히피문화를 복음으로 정복한 지저스피플 운동(Jesus People Movement)진원지 등을 방문했다. 이 날 강순영 목사는 방문지의 역사적 중요성을 설명했으며 강태광 목사는 기도회를 인도하며 부흥을 향한 열망을 갖고 모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들 순례기도팀은 그리피스천문대에서 LA 시가지를 바라보며 기도회를 갖기도 했는데 ‘천사의 도시’인 로스앤젤레스(Los Angeles)가 각종 지표상 타락과 범죄의 도시가 된 것과 수많은 비성경적인 제도와 문화를 만드는 진원지가 된 것을 회개하며 회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었다. 한편 청교도신앙회복운동본부 대표회장 한기홍 목사는 이 부흥성지순례기도회를 계속 이어나가기로 하는 한편 다민족연합기도대회에 동참했던 다민족 지도자들도 초청하여 부흥성지 순례기도회를 가질 계획이다. (정리: 박준호 기자)

(정리: 박준호 기자)



“MK들 모국 왔다가 머물 곳 없어 친척집·찜질방 전전”

선교사 자녀 주거 지원 사업 ‘MK미션센터’ 건립에 팔걸은 까닭은...

선교사 자녀 ‘MK(Missionary Kid)’ 중에는 대학 진학, 취업, 비자 발급, 군대 등을 이유로 모국에 잠시 왔지만 마음 편히 머물 곳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많다. 대학생은 학사관에 입주할 기회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최소 6개월 단위로 계약해야 하는 원룸에도 들어가기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들의 사정을 잘 아는 한국선교사자녀교육개발원(KOMKED·원장 김백석)은 지난해 11월부터 ‘MK미션센터’ 설립을 위한 미션콘서트를 개최하고 있다. 오는 19일과 26일 전북 익산 이리신광교회와 인천 운세계교회

에서 미션콘서트가 열릴 예정이다.

1999년 설립된 KOMKED는 매년 ‘선교사 자녀 모국 수련회’를 개최하며 MK를 위로하고 격려한다. 선교지에 거주하는 청소년 MK를 위한 ‘킹덤빌더스 멘토링 프로젝트’, 선교역량 강화를 위한 ‘콤포아카데미’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한다.

KOMKED의 주거지원 사업은 한국에서 코로나가 시작된 2020년 초에 본격화했다. 강평강 KOMKED 팀장은 “2019년 말부터 많은 MK가 한국에 귀국했는데 격리 기간에 머무를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 주거

공간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됐다”고 말했다. 강 팀장에 따르면 MK는 고국에서 친척집 찜질방 등을 전전하다 마음의 상처를 입는 일이 다반사였다. 다른 사람의 눈치를 봐야 하는 환경에서 주눅 든 경우가 많았다.

KOMKED는 2020년 서울 회기동 부근에 MK를 위한 숙박 공간 ‘콤포하우스 1호’를 시작으로 서울 노랑진동 ‘콤포하우스 2호’, 경기도 가평과 평촌에 콤포하우스 3, 4호를 열었다. 개인 공간이 33.1㎡(약 10평) 내외에 불과하지만 20여명의 MK는 이곳에서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주거 수요를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했다.

KOMKED는 많은 인원을 수용하는 ‘MK미션센터’를 설립해 MK의 주거 문제와 상담·양육 공간으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강 팀장은 “선교지에서 직간접적으로 사업을 감당하다 겪는 어려움으로 인해 부모님과 관계가 어려워진 경우도 있다”며 “자신의 정체성 문제로 고민하거나 선교지에서 받은 인종 차별 등으로 상처받은 이도 많다”고 했다. 이어 “선교지에서 언어 습득과 타 문화 경험 등을 한 MK는 이미 선교훈련을 받은 ‘차세대 선교사’라며 MK의 회복·양육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튀르키예 안디옥개신교회, 강진으로 완전히 붕괴

현지 교회 섬기는 한인 선교사 가족은 무사히 피신

진도 7.8의 강진으로 튀르키예와 시리아 등지에서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한국 교회가 현지에 세운 교회의 피해

해 소식도 전해지고 있다. 튀르키예 동남부 하타이주 안타키아에 세워진 안디옥개신교회가 대표적이다.

7일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선교부에 따르면 이 교회에서 사역하는 선교사 A씨는 6일(현지시간) 새벽 건물에 크게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A씨는 아내와 자녀 3명, 장인과 장모와 함께 거실에 모여 테이블 아래로 몸을 피했다가 큰 진동이 잠시 사그라들자 건물 밖으로 나왔다.

A씨는 이후 자신이 섬기는 안디옥개신교회를 찾았지만 교회 역시 지진으로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다. 교회 주변 건물들도 처참하게 붕괴돼 있었다. 기감 선교국 관계자는 A씨와 나눈 이 같은 내용의 대화를 전하면서 “현재 연락이 잘 안 되는 상황”이라며 “다행히 A씨 가족은 무사히 피신한 상태”라고 했다. 안디옥개신교회는 광림교회(김정석 목사)가 현지 문화재 건물을 매입해 2000년 6월 봉헌한 교회다.

기장, ‘2023 제107회 총회 선교정책협의회’ 개최

선교 정책 수립, 70주년 기념 사업 소개하는 시간 가져



올해 70주년을 맞은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총회장 강연홍 목사)가 6일부터 이틀간 충남 보령시 한화리조트 대천파로스에서 ‘2023 제107회 총회 선교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새 역사 70주년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하소서’를 주제로 각 선교위원회는 선교 정책을 제안 및 수립하고 ‘새 역사 70주년 기념사업’을 소개했다.

개회예배 겸 제287차 평화통일 월요기도회로 시작한 행사는 발제와 토론 순서로 이어졌다. 이날 기조 발제를 맡은 박재형 목사(기장 교회화사회위원장)는 “7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는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하소서’라는 고백을 함께 공유하고 있다”며 “우리가 세상에 선포해야 하는 복음의 본질은 여전히 사랑”이라고 했다.

이어 “불의와 부조리가 판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전쟁과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평화를 외치는 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선교의 정신”이라고 덧붙였다.

기장 총회는 70주년 기념사업으로 오는 22일부터 7월까지 5개월에 걸쳐 ‘새 역사 70주년 순례기도회’를 연다. 5월에는 ‘새 역사 70주년 신학대회’가 예정돼 있다. 간토 조선인 학살 100주년 기념 상징물 제작 사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학원복음화인큐베이팅, 전문 사역자 36명 첫 배출

학원 선교 비전과 사역을 ‘빌드업’ 해 나갈 것

다세대 복음화를 위해 헌신하는 전문 학원사역자들이 처음 배출됐다. 학원선교단체인 학원복음화인큐베이팅(대표 최새롬 목사)은 5일 경기도 안양 평촌 새중앙교회에서 학원사역자 양성교육과정 1기 수료식(사전)을 열고 총 36명의 전문사역자를 배출했다.

지난달 초부터 4주에 걸쳐 이

뤄진 교육에는 전국 40개 교회 70여명의 담임목사와 사모, 부교역자, 신학생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향후 전국 각지의 중·고등학교를 기점으로 지역교회와 학교, 학부모 등과 연합해 기독교 동아리, 예배모임 등 학원사역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이날 수료식에서는 학원선교 성공 사례도 제시됐다. 제주중

앙고등학교 교목인 이순규 교사는 제주중앙고등학교와 학원복음화인큐베이팅의 협력 사례를 설명하면서 “매주 20개반에 들어가 반별 채플과 학년 채플, 여름·겨울 아웃리치, 하늘꿈학교(탈북청소년학교)와의 연계 사역 등을 진행했다”며 “이런 협력으로 780여명의 청소년에게 복음을 전하고 부흥을 이뤘다”고 소개했다.

전문 학원사역자인 성민교회 염신국 교육총괄 목사는 교육 과정에 대해 “지역 학교의 복음화를 위해 교계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교육과정을 통해 ‘학원선교 비전이야말로 진짜다’라는 것을 발견했다”고 강조했다.

공식적인 양성 과정은 마쳤지만 후속 모임은 지속적으로 열린다. 최새롬 대표는 “오는 5월부터 열릴 후속 모임에서 기독교 동아리 개설 과정과 성공 전략 등 다양한 사례를 공유하며 학원사역을 ‘빌드업’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교계 “지상파가 기독교 폄훼·동성애 조장 노래 방송 허용” 규탄 집회

의도적으로 기독교를 공격하는 가사, 결코 묵과할 수 없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교계와 시민단체가 3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한국 최초 동성애 보이그룹을 표방한 가수 ‘라이오네시스’의 노래를 ‘방송 적합’ 판정한 MBC를 규탄했다. 해당 노래가 기독교를 폄훼하고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이유에서다.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수기총), 반동성애기독교시민연대, 동성애동성혼 반대 국민연합(동

반연),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진평연) 등 1200여개 단체는 지난달 12일에 이어 이날 그 규모를 확대해 재차 집회를 열었다. 주최 측은 이날 약 5000명이 참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이날 MBC에 “기독교를 조롱하고 폄훼하는 신성 모독적 가사가 담긴 라이오네시스의 노래 ‘잇츠 오케이 투 비

미(It's OK to be me)’에 대해 신속히 ‘방송 불가’ 판정으로 정정,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전했다.

이들은 해당 노래에 담긴 ‘세상을 구하는 길로 치면 내 맞선 임은 Jesus’나 ‘난 태초부터 게이로 설계됐어. 내 주께서 정했어’ 등의 가사가 “의도적으로 기독교를 공격하는 가사”에 결코 묵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수기총 등은 성명을 통해 “방송은 ‘사회의 구성원 전체가 이용하는 도구’인 ‘공기(公器)’여야 하며, 특히 아동·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며 “노골적으로 동성애를 선전해 아동·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주며, 이를 반대하는 이들을 도발하는 동성애자그룹 라이오네시스의 노래 ‘잇츠 오케이 투 비 미’를 공연방송 MBC에서 방송하려는 만행을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MBC문화방송 심의부는 지난해 12월 20일 해당 곡에 대해 애초 ‘방송 적합’에서 재심의를 거쳐 ‘방송 적합’으로 판정을 내렸다. 이후 다른 지상파 방송에서도 이를 허용할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교회언론회 “예수상 논란, 교회가 적극 대처하라”

“교계의 대처 너무 미온적”, 더이상 선의의 피해자 생겨선 안된다

한국교회언론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가 세계 최대 규모 예수상 논란에 대해 “한국교회가 너무 미온적이라는 의구심이 든다”며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하는 내용의 논평을 3일 발표했다.

언론회는 “논란이 되는 예수상 문제가 불거지며 교계 일간지에서 수차례 보도한 바 있지만, 여전히 예수상을 세우겠다는 단체(한국기독교기념관) 홈페이지에는 ‘협력 기관’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 주요 교단과 단체들 이름이 자그마치 90여 개나 올라가 있다”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한다면 신속하게 교계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언론회는 “교계 밖에서는 이만큼 한국 교계가 협조하는데 무슨 문제가 되느냐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결국 피해는 한국교회에 입게 된다”면서 “더불어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 사업에 필연코 투자자를 끌어들이는데 이미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없는 상황에서 선의의 피해자만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해당 지자체로부터 건축허가가 취소됐고, 대표자의 신분과 행적에 대한 의구심이 들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교계는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신속하게 밝히고 한국교회의 이미지 실추를 막고, 더 이상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피종진 목사 2월 부흥성회

- 총신대학교 56회 동문회 회장
- 연세대학교 총동문회 상임이사
-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이사
- 한국뉴욕주립대학교 영어 연구원 동문회 회장
- 미국 Philadelphia Faith 대학원 총장 Carl McIntire(D.Min)
- 미국 Henderson Christian University 총장 Henderson Beik(Th.D)

010-5255-7777
GodBless3377@gmail.com

1(수)	고흥 열림수양관 (원장 김진석목사, 원목 함태영목사) 010-8653-1213
6(월) 오후	햇빛연예인선교회 (정해빛 목사) 010-8014-3121
7(화) 오후	교육세미나 주최 대한예수교장로회(대한)교육부 010-7291-0291
	인천 송도사랑의교회 (박용배 목사) (032) 832-8290
	주관 미국 Knapp Seymour University (총장 Tomas VrumPild)
	이사장 홍용표 박사 행정총장 심진구 박사 (Cell 1-213-590-9191)
8(수) 오전	용산 은목교회 (이무형 목사) 010-3518-1685
	행정 서귀향 전도사010-3764-7517
8(수) 오후	광명 예수생명교회 (주종순 목사) 010-5514-4802
9(목) 오후	성민 중앙교회 (강영준 목사) 010-9260-1091
10(금) 오후	서울 강남반석교회 (강사랑 목사) 010-8331-3431
11(토) 오후	World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고은 피종진 목사 이사장 정진희 목사) 010-7567-8291
13(월)~16(목)	진안군 임마누엘 냉천수양관 (원장 이공순 목사 010-8623-6391
	행정 부목사 박복주 목사 010-4132-1191
16(목) 오후	오산리 최자실목사 기념 금식기도원 (원장 김원철 목사)
	주최 한국기독교 부흥사단체 총연합회
	(대표총재 피종진목사 준비위원장 장사무엘목사) 010-7733-9106
17(금) 오후	서울 위대한약속교회 (임미영 목사) 010-6201-8374
18(토) 오후	세계문화예술올림픽 대강당 주최 (사) 세계문화예술총연합회 (이사장 한장서 목사) 010-3927-0691
19(주)~22(수)	전남 무안 총민한 교회 (한창남 목사) 010-2471-6266
24(금) 오전	오산리 최자실기념 금식기도원 (원장 김원철 목사) 주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배용신 목사 준비위원장 김동근 목사) 010-2358-9232
24(금) 오후	서울 강남반석교회 (원장 강사랑 목사) 010-8331-3431
26(주) 오후	인천 품이 있는 교회 (김용희 목사) 010-7291-0291
	Good TV 부흥사업 김용희 대표회장 취임예배
27(월) 오후	천안 위대한약속교회 (윤재민 목사) 010-6352-0691
28(화) 오전	서울 강남순종교회 (오승준 목사) 010-3942-8434

대한예수교장로회 www.nasca.or.kr

남서울중앙교회 Tel. 02)3411-9191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40(개포동) Fax. 02)401-7770

mission 선교의 창 (210)

송종록 목사
(크로스선교전략 연구소)



아프리카에 대한 이해와 혁신적 선교방안

인간은 누구나 존엄하다. 평등하다. 인간 위에 인간 없고 인간 아래 인간 없다.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디 현실은 그러한가? 지구상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애완동물만도 못하게 취급되고 있다. 그 대다수 사람들이 아프리카에 있다. 그 곳은 태고적 원시 문명과 산업화 문명 그리고 초현대적 정보사회의 문명이 공존하고 있다. 주님 오신 이후 2천 년이 흘렀건만 저 대륙에는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문명의 혜택을 커녕 1차적 생존을 위해 허덕이고 있다. 누가 저 백성들에게 산 소망과 복지를 제공할 것인가? 하나님 나라는 우주적이다. 복음이 민족과 국가의 테두리를 넘지 못한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다. 그러므로 세계의 기독교회는 빛진 마음으로 아프리카를 바라보며 뭔가 근본적 대책을 내 놓아야 한다. 같증 나는 적선(積善)으로는 저들에게 참된 행복을 줄 수 없다.

1. 일반적 상황

아프리카(Africa)는 아시아 다음으로 면적이 넓고 인구가 많은 대륙이다. 크기는 주변 섬을 합하여 3천2십만km²으로서 지표 표면의 6%이며, 육지 면적의 20.4%를 차지한다. 나라 수는 54개이며 인구는 2022년 말 기준 약 14억 명이다. 이는 세계

인구의 17.5%에 해당된다 (Worldmeter.info). 종족으로는 토착 아프리카계 77.9%, 아랍계 17.3%, 유럽계 1.1%, 아시아계 0.4%, 혼혈 0.7% 기타 등이다. 언어는 2110개(세계 언어의 30.5%)가 있다. 공용어로는 아랍어 7개국, 프랑스어 22개국, 영어 21개국, 포르투갈어 4개국, 스페인어 1개국 있다. 이 언어군은 이전의 서구 식민지 지배와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다. 아프리카에는 천연자원이 풍부하

2. 아프리카의 개괄적 역사

아프리카의 역사는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기독교의 전래와 이슬람화(AD 67-1500년)시기이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북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에 도달해 꽃을 피웠다. 이때는 교회의 아버지라 불리는 클레멘스(Clemens), 교부인 오리겐 (Origen), 기독교 변증가로 이름 난 터툴리안(Tertulian), 성 어거스틴(Augustine) 등 가라성

른 부족들을 사냥하는 방식을 썼다. 이는 아프리카의 전통질서를 깨고, 유색인종들에 대한 뿌리 깊은 적대감을 갖게 했다. 끝으로 식민지 정탈전과 개신교 선교 (1900년대 이후) 시대이다. 아프리카의 최초의 개신교 선교는 모라비안 선교회 소속 게오르그 슈미트(George Schmidt)였다. 본격적인 선교는 1840년을 기점으로 하는 리빙스턴(David Livingstone)의 내륙탐험에 힘입게 되었다. 그는 1855년까지 복음이 널리 전될 수 있는 길을 열고자 아프리카 남부에서 시작하여 서부와 동부를 연결하는 육로를 찾는 데 온 힘을 다했다. 하지만 리빙스턴 및 동시대의 탐험가들이 발견한 지리와 보고서들은 선하게만 쓰이지 않고 한편으로 식민지 정탈을 위한 자료가 되기도 했다.

3. 아프리카의 당면 과제

대다수 아프리카인은 비단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심각한 사회적 문제와 영적 도전 앞에 직면해 있다. 첫째, 빈곤의 악순환이다. 수많은 이들이 기근과 굶주림 속에 죽어가고 있다. 상대적 빈곤이라기보다는 절대적

료들의 부정부패도 빼놓을 수 없다. 넷째, 교육시스템의 부재이다. 아프리카의 문맹률은 세계에서 가장 높다. 특히 서부 아프리카는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사람이 전체 인구의 20% 미만이다. 다섯째, 이단들의 득세이다. 그 중에서 이슬람의 팽창은 놀랍다. 저들은 움마(Ummah) 공동체를 지향하기에 한 번 탈취하여 다른 종교 등이 설 자리가 없다. 이 밖에도 종교혼합주의와 이단들이 우는 사자처럼 기승을 부리고 있다.

4. 도발적인 선교 전략

그간 기독교 선교는 검은 대륙에서 무엇을 했는가? 영혼구원, 교회세움, 교육기관과 병원 등을 통해 문명 퇴치와 환자 진료, 각종 공화사역, 이 밖에도 밀물처럼 치고 내려오던 이슬람을 저지하며 노예무역을 중지시키고 아프리카를 해방하는데 큰 몫을 담당하였다. 현대 유감스러운 것은 이런 수고와 헌신과 투자가 있었음에도 아프리카는 여전히 산적한 문제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기독교 선교의 새로운 대안은 무엇인가? 그것은

만일 우리 선교가 국가적 차원에서 전심(몸통)으로 하지 않고 지금까지 개인과 교회차원에서 부분적(깃털)으로 돕는 한 아프리카는 계속적으로 신음하며 눈물을 흘릴 것이다. 지나간 2,000년의 선교가 그래왔다.

맺음 말

개인교 교회와 국가는 뭘 수가 없다. 인간은 누구나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지금 살고있는 세상에서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 아프리카는 상처받은 대륙이다. 그 상처를 누가 몇 나게 했는가? 서구 기독교 세력들은 이제라도 속죄하는 마음으로 빛을 갠야 한다. 그간 선교사 몇 명 보내고 교회차원에서 구제사역을 한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된다. 이는 거대한 아프리카 대륙에서 우리 속담처럼 “간에 기별도 안 간다.” 그 결과가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은가? 따라서 앞으로의 선교는 과도 수정을 과감히 해야 한다. 산발적이며 개체적인 방식으로는 아프리카 대륙을 구원할 수 없다. 이제 힘있는 국가들이 나서서 선한 역할을 병행해야 한다. 이를

아프리카에는 지금도 혼돈과 아픔이 공존하고 있다. 이전에 저 땅을 침탈한 세력은 서구의 기독교 국가들이었다. 기독교 배경의 부강한 나라들은 국가적 차원에서 선을 베풀어야 한다.

지만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저개발 지역이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주로 에이즈와 말라리아 같은 질병과 정부의 부패, 높은 문맹률, 해외자본의 부족, 빈번한 부족 간 충돌 때문이다. Patrick Johnstone "Operation World" 통계에 의하면 종교 분포는 기독교 48%, 이슬람교 41% 전통종교 8.7%, 힌두교 0.2% 기타 등이다. 지금도 사하라 사막을 중심으로 북서쪽의 이슬람과 남동쪽의 기독교가 첨예한 대립 가운데 영적 전선이 펼쳐지고 있다.

같은 신학자들이 출현하여 기독교의 기본교리를 정립하는데 큰 공헌을 하였다. 하지만 그 곳의 교회들은 AD639년부터 시작된 이슬람 군대들의 공격을 받고 전멸하게 되었다. 그때부터 이슬람은 약 AD1500년까지 북부 아프리카를 장악하였다. 다음으로 서구 세력에 노출된 (1500-1800년) 시기이다. 지리(地理)상의 발견은 아프리카에게 지울 수 없는 크나큰 아픔과 상처를 남겨주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노예무역 때문이었다. 유럽인들은 몇몇 부족들을 이용하여 다

빈곤 속에 있다. 영양실조로 인한 짧은 수명, 사망률의 급상승, 높은 실업률 등은 이 지역 사람들의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잘 나타내고 있다. 둘째, 의료 환경이다. 사하라 이남의 성인 중 10% 정도가 에이즈(HIV)에 감염되어 있다. 지난 2000년까지 1,370만 명이 이 병으로 죽었다 (Operation W.자료). 이 밖에 말라리아 등 토착 질병으로 인해 사망자는 셀 수가 없다. 셋째, 정치의 취약성이다. 통치체제가 불안정하고 독재문화가 팽배하며 끝없는 종족분쟁과 쿠데타가 여기저기서 반복되고 있다. 관

기존의 사역 패턴을 지속하되 이제는 이슬람권의 전략처럼 국가차원에서 힘을 보태는 방법이다. 즉, 기독교 배경의 선진국들이 아프리카 나라들과 자매결연을 맺고 정치체제와 사회개혁 등 총체적으로 돕는 일이다. 국력에 비례해서 미국같이 힘이 있는 나라는 몇 개 나라, 한국 같은 한 개 나라 정도를 분담하면 된다. 이때 조심할 것은 19세기의 유럽 제국주의 식민 통치 식은 철저히 배격해야 한다. 그야말로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한 나라를 구원한다는 심정으로 조건 없이 접근해야 한다.

위해 우리 크리스천들은 자기가 속한 곳에서 정치 지도자들이 움직이도록 영향력을 발휘하며 설득해야 한다. 만일 국가 차원에서 선교가 뒷받침된다면 아프리카 대륙은 하나님의 살롬이 영혼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저들 교회와 민족과 국가가 먹구름처럼 밀려오는 이슬람을 대적하며 세계 속에서 선교적 몫을 감당하지 않을까!

jrsong007@hanmail.net



인문학으로 읽는 예수님 생애

⑦ 예수님 시대의 사마리아 연구

예수님 시대에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에게 환영받을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사마리아와 사마리아인은 뜨거운 감자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을 만나기도 하였고 예수님의 비유에서 사마리아인을 아름다운 모습으로 등장시키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를 찾습니다. 그곳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만나신 사마리아 여인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수차례 이혼의 경험이 있었고, 현재의 삶도 윤리적인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아닌 남자와 같이 살고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서는 일반 유대인이 갖고 있었던 사마리아인에 대한 반감이나 적대감을 갖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역사를 전하는 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사마리아 지역에서는 북 이스라엘 사람들, 즉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그리스 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며 살고 있었다.'고

전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인들은 이방인 같은 존재였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세겜을 중심으로 성전을 짓고 새로운 신앙 전통을 세웠습니다. 사마리아도 하나님을 섬겼으나 옛적부터 있었던 토착종교의 관습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서로 섞여서 유대인의 유

일신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과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의 시작은 남북 왕조의 분리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유대와 분리되고 적대감이 발전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버금가는 성전을 세겜에 지었습니다. 사마리아 자체적인 예배를 발전 시킴으로 좁혀질 수 없는 간격을 만들어 갔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서로 함께

할 수 없는 적대감이 있었습니다. 그 시대 사마리아인을 향한 유대인의 마음은 요한복음 8장에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고 책망하자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악담합니다. 8장 48절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일반 유대인이 갖는 사마리아인에 대한 반감과 적대감 예수님의 비유 ... 사마리아인 아름다운 모습으로 등장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 하나"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과 귀신들린 사람을 동일시합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경시하고 악평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마리아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나시고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각색하여 비유 가운데 등장시키시는 것

은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말은 처음으로 구약(열왕기상)에 등장합니다. 북 왕국 이스라엘의 오므리(Omri)왕은 세겜성 북쪽 땅을 사서 사마리아 성을 세웁니다. 세멜(Shemer)이라는 사람에게서 산을 사서 성을(fortified city)을 건설하고 산의 주인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 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가 북 왕국의 도읍이 되어서 B.C 332년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 함락될 때까지 사마리아는 북 이스라엘의 도읍 자리를 지킵니다. 도시 사마리아가 북 왕국의 이름이 됩니다(왕상 13:32, 호 8:5, 암 3:9, 사 9:9-12). 나아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사마리아인이라 부릅니다. 사마리아인(Samaritan)이라는 이름은 구약에 꼭 1회(왕

하 17:29) 등장합니다. 이 사마리아인이라는 이름을 요세푸스와 탈무드에서 발견합니다.

앗수르 왕 살만에셀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포로로 데리고 가고, 바벨론 등 여러 나라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사마리아에 살게 합니다(왕하 17:24). 사마리아에 사는 이방인을 하나님이 징벌하셔서 몇 사람이 죽습니다. 이를 알게 된 앗수르 왕은 사마리아에서 잡아 온 제사장들을 데리고 가서 사마리아에 살게 합니다. 그들은 법을 가르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그들은 산당을 짓고 자신들의 신을 섬깁니다. "이와 같

는 자', 혹은 '하나님 율법을 지키는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사마리아인들은 자신들을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진리를 지킨 자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유대인과 구별되는 믿음의 기준이 있습니다. 먼저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라고 믿고, 둘째 하나님은 오직 한 연언자(모세)만을 허락하였고, 셋째 하나님 말씀은 모세 오경뿐이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예배 장소는 오직 그리스심산이라도 믿었습니다.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리스 산의 성전은 알렉산더 대왕 시절 예루살렘 성전을 모방하여 세웠다고 전합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후에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USA대표)

일반 유대인이 갖는 사마리아인에 대한 반감과 적대감 예수님의 비유 ... 사마리아인 아름다운 모습으로 등장

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 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왕하 17:33)라고 사마리아인의 약한 모습이 묘사됩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스스로를 사마리아인으로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를 때 사마리아는 히브리어 사마림 혹은 사마린에서 왔는데 이 말은 '진리를 지키

인 북 이스라엘은 악과 불순종 방향으로 조금씩 이동해 돌이킬 수 없는 사마리아인이 됩니다. 그들은 독선과 아이집으로 선지서, 시가서와 역사서를 거부합니다. 점점 악화된 그들은 예수님 시대에 거의 이방인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정죄하지 않고 그들의 선한 점을 인정해 줍니다. chap1207@hotmail.com

매일가정예배

전화령(캄보디아 선교사)
whiteyou11@yahoo.com

월 사복음의 능력 (롬 1:15-16) 찬 404 장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사도는 그 복음의 진가를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첫째, 복음만이 구원을 준다고 말합니다. (16) 여 기 구원은 죄로 부터의 구원 곧, 모든 저주에서의 구원입니다. 죄 사함이 새로운 일의 시작이기 때문에 복음을 아는 자는 즉시 새 사람으로 새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복음으로 시작하 는 새해는 반드시 새 역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둘째, 복음을 믿을 때 능력이 발한다고 했습니다. (16) 바울이 복음을 자랑 하는 이유는 복음만이 온 세상에 모든 일에 풍성한 열매를 나

타내기 때문입니다. 고로 누구든지 복음을 알고 복음을 중시 으로 한 삶을 살 때 기이한 은혜를 받습니다. 복음 외에 다른 유일성을 주장함은 모두 거짓말입니다. 복음만이 믿는 자에게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복음은 믿음을 요구합니다. (17) 샘물결에서 내가 마시지 않으면 무익한 것처럼 복음에 믿음을 화합하지 않으면 그 능력을 누리지 못합니다. 누구든지 복 음을 중심으로 믿기만 하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 복음을 모든 일에 적용합니다.

화 복음의 실상 (롬 1:17) 찬 403 장

복음의 능력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어떻게 나타납니까? 첫 째, 하나님의 의로 나타납니다. 죄에 대한 심판을 대신 담당하 신 그리스도의 죽음이 무엇보다 하나님의 의의 요구를 충족 하게 채우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하나님의 의를 백일하 에 들어냈기 때문입니다. 죄는 반드시 대속 제물로만 제해된 다는 사실을 그리스도의 죽음이 증거합니다. 이 의가 구원과 모든 것의 기준입니다. 둘째, 믿음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입니다. 한번 믿음으로 시작한 삶은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것

입니다. 하박국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하나님의 응답 은 믿음의 삶을 분명히 정의했습니다. 이것은 믿은 이후에도 계속 믿음으로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것은 하나 님만을 즐기는 삶이란 뜻입니다. 현실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과 그의 약속만을 신실하게 믿고 살아가는 삶입니다.(함 3:17-18) 우리가 어디있든지 복음의 믿음을 따를 때 하나님의 형상 을 나타낼 것입니다.

수 복음의 제일순위 (롬 1:18-20) 찬 405 장

사도가 전한 복음의 구조는 어떠했습니까? 첫째,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음을 보여줍니다. (18) 진리이 신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그들은 불경건한 생각 과 불의에 떨어져 자기 힘으로 그 수준에 나아갈 수 없는 자가 된 것입니다. 둘째, 배은망덕의 죄 때문에 심판을 피할 수 없 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의를 나타내는 뚜렷한 증거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탄과 연합 한 자 가 된 것은 강한 의도성을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직하게

만드셨으나 그들은 많은 죄를 내어 그를 떠난 것입니다. (19) 셋째, 창조 속에 그 의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그 낮을 피하여 핑계하는 자리로 떨어진 것이 인간의 실상입니 다. (20) 복음은 인간의 반역 행위로 절대 저주 가운데 떨어졌 음을 분명히 나타냅니다. 그래서 사도의 복음은 이 문제를 제 일 순위로 다루었습니다. 복음은 인간의 전적 부패성을 먼저 깨닫게 합니다.

목 인간의 부패성 1 (롬 1:21-23) 찬 257 장

사도는 인간의 전적 타락을 세 단계로 설명합니다. 첫째 단 계, 의도적인 반역이다. (21) 그는 하나님의 뜻과 그 증거를 보 고서도 영광 돌리거나 감사치도 않았습니 다. 이 말은 하나님 과의 교제를 멀리하고 다른 것과 교제를 즐기고 있다는 증거 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예배보다 자기 자신을 예배하 는 일에 급급했습니다. 둘째 단계, 허망한 생각으로 바꾸어졌 습니다. (21) 빛을 잃은 어두움과 혼란과 공허가 지배하는 인 간 생각은 언제나 자기중심으로 기울어질 수 밖에 없습니 다.

결국 허망한 생각은 감정과 지식 그리고 모든 생활에까지 혼 미한 인생을 살게합니다. (21) 오직 성경에 의존된 생각으로 채워질 때 광명을 볼 수 있습니다. 셋째 단계, 우상숭배이다. (22-23) 마침내 그 어두움은 참 경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의 자 리를 다른 피조물로 대치하나 이것은 곧 자기를 신으로 섬기 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자리를 쟁탈하여 자기 바벨탑을 쌓는 완전한 부패로 떨어진 것입니다. 자기와의 싸 움을 힘쓰는 목표로 살아갑니다.

금 인간의 부패성 2 (롬 1:24-27) 찬 190 장

인간이 범한 죄는 어떤 것입니까? 첫째, 더러운 정욕으로 나타났습니다. (24) 고귀하게 지음받은 인간의 욕망은 마귀가 지배함으로 온갖 더러운 것을 솟아나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 과의 교통이 끊어짐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만을 기뻐할 소원 이 죄를 즐기는 정욕으로 바뀌어져 자기 왕국을 세우는데 집 중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그들의 몸을 욕되게 사용 했습니다. (24) 그 정욕은 인간의 지성의와 그의 육체의 기능을 하수인

으로 삼아 더러운 열매를 계속 맺게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은 속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이 밖을 더럽힌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막 7:1-23) 셋째, 정상적 윤리 관계를 모두 무너뜨렸습 니다. (26-27) 정욕의 종이 된 인간 사회는 모든 순리를 역리 로 사용하며 그것이 옳다고 주장합니다. 모든 윤리기준이 왜 곡되어버렸습니다. 이 기준을 회복하기 위하여 자신부터 복음 에 합당한 삶을 살아갑니다.

토 인간의 부패성 3 (롬 1:28-32) 찬 337 장

정욕으로 시작된 죄는 모든 관계에 최악의 열매를 맺합니 다. 사도가 관찰한 21가지의 최악은 어떤 것입니까? 첫째, 죄 의 시작은 하나님을 즐기지 않음에서 나옵니다. (28) 사랑받 은 피조물이 창조주를 반역하여 사탄의 유혹을 즐길 때 하나 님은 그들을 버리셨습니다. 물을 떠난 물 고기처럼 죽음이 시 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을 즐기는 길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둘째, 죄인에게 나타나는 열매는 셋입니다. 첫째 부류는 불의입니다. 29절에 "모든 불의"라고 언급했습니다.

교만과 자기 자랑 그리고 배은망덕의 죄가 해당됩니다. 둘째 부류, 무자비함입니다. 의를 상실한 자의 삶은 자기 탐욕의 노 예가 되어, 이웃에게 해가 되어도 자기 욕망을 쟁기려고 심혈 을 쏟습니다. 시기, 살인, 분쟁, 악독, 능욕, 무정함, 무자비함 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셋째 부류는 불신실함입니다. (30-32) 우상숭배, 간음, 외식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리 스도안에서 이 죄사함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 살아야 합니다.

기독교교육 (21)



김종환 목사
(달라스침례대학교 교수)

기독교교육의 리더십

기독교교육은 리더들을 필요로 합니다. 교회의 귀한 사역은 자연히 또는 우연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또는 누군가들이 리더를 해야 합니다.

리더란 다른 사람들이 따르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따르도록 하는 것이 리더십입니다. 한때 는 리더는 날 때부터 정해져 있고 리더십은 타고나 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소수의 특별한 사람 들만이 리더가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현대의 리더십은 관계적인 과정으로서 집단의 구성원들이 리더십을 나누어 가진다고 믿으며, 따 르는 사람들의 자세와 역할에 강조를 둡니다.

리더십에 있어 리더와 팔로워(follower)의 상호 관계를 강조하는 오늘날 쉐번트 리더십이 주목을 받습니다. 쉐번트 리더십이라는 개념은 1977년 AT&T에서 경영관련 연구와 교육을 담당했던 로 버트 그린리프(Robert K. Greenleaf)가 저술한 Servant Leadership(쉐번트 리더십)에서 처음으로 제시되었습니다. 그 후 이 개념은 경영학계의 별다 른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1996년 4월 경영관련 서적 전문출판사인 조시-베스(Jossey-Bass)사가 On Becoming a Servant-Leader(섬기는 지도자가 되는 것에 관하여)를 출간했습니다. 그것 을 계기로 많은 경영학자들이 쉐번트 리더십에 대 해 새로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린리프는 쉐번트 리더십을 다음과 같이 정의 했습니다. "타인을 위한 봉사에 초점을 두며, 종업 원, 고객, 및 커뮤니티를 우선으로 여기고 그들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헌신하는 리더십." 그는 쉐번트 리더십의 기본 아이디어 헤르만 헤세 (Herman Hesse)가 1932에 발표한 소설 Journey to the East(동방순례)에서 연유했습니다.

이 작품 속에서 일단의 순례자들이 궁극적인 진 리를 찾기 위해 순례의 길을 떠났습니다. 그들 중의 레오(Leo)라는 인물은 허드렛일을 하며 순례자들 의 불평을 경청하는 등 순례단의 굶은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스스로 하인을 자칭했던 레오가 순례길 에서 어느날 갑자기 사라지자, 굳건했던 조직이 혼 란을 겪게 되고 결국 순례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충직한 '쉐번트' 레오가 없이는 되는 일이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하인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던 그 가 실질적으로는 순례자들의 정신적 리더였던 것 입니다. 결국 여행이 중단되었습니다. 후에 그가 순 례자들이 속한 종교단체의 최고책임자인 것이 밝 혀지면서 '봉사와 헌신'으로 조직을 이끈 최고의 리더십의 표상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린리프는 레 오를 쉐번트 리더의 전형으로 봤습니다.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Peter F. Drucker)는 Managing for the Future(미래경영)에서 지식시대 에서는 기업 내에서 상사와 부하의 구분도 없어지 며, 지시와 감독이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리더가 부하들보다 우월한 위치에서 부하들을 이끌어야 한다는 기존의 리더 십 패러다임에서 리더가 구성원들을 위해서 헌신 하며 구성원들의 리더십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쉐번트 리더십 위주의 패러다임으 로의 전환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쉐번트 리더십이란 한마디로 '사랑'을 실천하는

리더십입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사랑을 통해 조직 과 공동체를 하나로 묶고 봉사와 헌신이라는 실천 양식으로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문제의 원인을 외부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서 찾 고, 직원들 위에 군림하기보다는 봉사와 헌신으로 갈등의 원인을 원천봉쇄 한다는 점에서 다른 리더 슴들과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인디애나폴리스에 있는 Greenleaf Center for Servant Leadership(그린리프 연구센터)의 소장인 스피어즈(Spears)는 쉐번트 리더의 주요 특성을 다 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1. 경청(Listening): 경청은 다른 사람의 말을 존 중하는 자세로 듣고 수용적인 태도로 이해하는 것 입니다. 리더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경청을 통해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바라는 바를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2. 공감(Empathy): 공감이란 차원 높은 이해심 이라고 할 수 있는데, 리더는 구성원들의 감정을 이해하고, 그것을 통해 그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 가를 알아내고 그들을 섬깁니다.
3. 치유(Healing): 치유는 리더가 구성원들에게 문제가 있는지 살피고 문제가 있는 구성원들을 보 살피는 것입니다.
4. 청지기 정신(Stewardship): 리더는 구성원들 을 위해 공동체의 자원을 관리하고 봉사합니다.
5. 구성원들의 성장에 대한 헌신(Commitment to the growth of people): 리더는 구성원들이 성숙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맡은 일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기회와 자원을 제공합니다.
6. 공동체 형성(Building community): 리더는 구 성원들이 서로 존중하며 봉사하는 공동체, 진정한 의미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도록 하는 일에 헌신합 니다.

이와 같은 개념과 정신과 자세는 무엇보다 크리 스티언들의 삶에 먼저 적용되고 크리스천들이 먼저 실천해야 할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쉐번트 리더십의 원조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 다.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 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 까지 복종하셨습니다(엡 2:6-8). 그분은 이 땅에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습 니다(마 20:28). 손수 제자들의 발을 씻주어주셨습 니다(요 13:4-5). 그분의 제자들은 그분의 섬김의 도 를 배우고 실천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많은 교회 리더들이 쉐번트 의식 보다는 권위주의로 뭉쳐있는 모습을 보 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어주 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 게 행한 것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 였노라"(요한복음 13:15). 기독교교육을 이끄 는 리더들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리더십이 곧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섬김의 도입니 다. 교회마다 기독교교육을 실천하고 이끌어 갈 쉐번트 리더들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jonk@dbu.edu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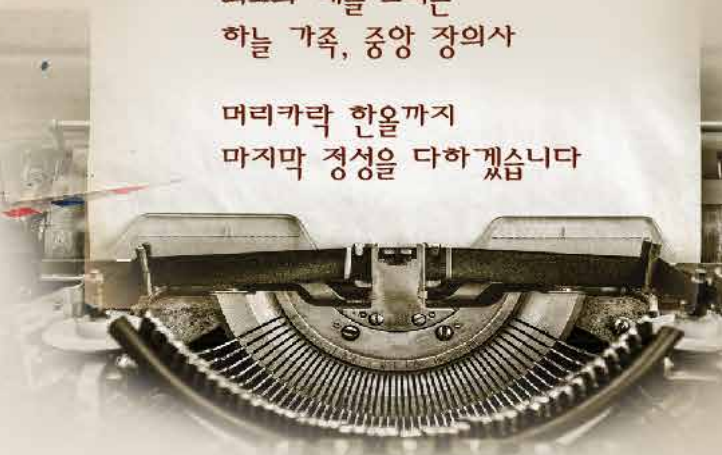
가슴으로 쓴 이야기는 세월이 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한 생애를 살아온 당신이 남긴 사랑의 이야기들

기억은 추억이 되어 더욱 소중한니다

최고의 예절 드리는 하늘 가족, 중앙 장의사

머리카락 한올까지 마지막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정성속에 함께 보낸 31년 Since 1988, 최초의 한인 공인장례사

당신의 이야기 ... 사랑의 꽃이 됩니다

모든지역 - 대형 파랑장 원내

Central Funeral Home: BongHo Ha F.D. NJ LIC 4569 | Gina Chong F.D. NJ LIC. 4504 | John Chong F.D. NJ LIC 5079
NY: 샌프란시스코 162-14 Sanford Ave., Flushing, NY NJ: 워싱턴 809 Broad Ave, Ridgefield, NJ NJ: 잉글우드 129 Engle St, Englewood, NJ

장례사전계획 | 장례식 코디네이터 | 성직자 초빙 | 묘지구입 상담 | 운구 한국소환 | 이장 | 기타 장례의 모든 것
뉴욕 | 718. 353.2424 뉴저지 | 201.945. 2009

세계한인기독교언론협회 제 8회 독후감 공모전 당선작

장려상 문지혜(은혜한인교회)

세계 곳곳에 있는 소수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작은 자였기에 받아 누린 하나님의 큰 은혜 '한 달란트'를 읽고...

이 책의 제목이기도 한 '한 달란트'는 도대체 얼마 만큼의 가치를 지닐까?

본래 달란트는 메소포타미아와 그리스-로마 등지에서 금이나 은을 쥔 때 사용하던 단위라고 한다.

미국 게이트웨이 신학교의 알렉산더 슈투어트 교수는 당시 로마의 화폐 단위를 계산했을 때 금 한 달란트가 18만 데나리온 정도 일 것으로 추산했다.

미국 게이트웨이 신학교의 알렉산더 슈투어트 교수는 당시 로마의 화폐 단위를 계산했을 때 금 한 달란트가 18만 데나리온 정도 일 것으로 추산했다.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한 달란트' 빛진 종을 탐강해 준 너그러운 임금의 비유를 사용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주보다 더 큰 축복할 수 없는 은혜를 부여하셨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박성현 교수님과 장현경 사모님의 하나님과의 동행이 담긴 이 책은 총 4개의 파트로 구성돼 있었는데, 파트마다 화자가 달라 여는 책과 다르게 더욱 즐겁게 읽혔다.

박성현 교수님의 눈과 마음으로 엿보던 생애가 다음 파트에서는 장현경 사모님의 경험과 감정이 되었다. 부부의 삶은 계속되는 고난과 기도, 그리고 기도 응답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미국 영주권을 받기까지 10년이 넘는 세월을 견뎌야 했고 나중엔 캐나다 국경까지 넘어야 했다. 하지만 오히려 이를 통해 '천국 시민'이라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나 역시 미국에 대한 환상으로 부푼 유학생으로 도미해 회사를 통해 그린카드를 받고 정착했기에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지 알고 있다. 언제 나올지 모르는 영주권을 하염없이 기다리며 기도했다.

하지만 내 주변에는 여전히 10년이 넘도록 영주권을 얻지 못한 지인들이 있다. 함께 유학했던 친한 친구들은 버티고 버티다 신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대부분 한국에 돌아가거나 원치 않는 결혼을 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 책의 저자, 박성현 교수님과 장현경 사모님은 신앙의 힘으로 플라스틱 조각(영주권)을 넘어선 자신의 정체성을 찾았다. 부부가 말 한 '천국 시민'이라는 단어를 살짝 희열이 느껴졌고, 내 식견이 얼마나 좁았는지를 또 한 번 깨닫게 된 순간이었다.

어둠에서 나와 빛의 자녀가 되기로 해 놓고 나는 자꾸 세상의 것에 얽매이고 세상의 것들로 고민하고 끊임없이 두려워하며 불안해한다. 여기에 더해 우리는 연약한 죄인하기에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방어 기제로 자기 합리화하려고 한다.

장현경 사모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모두 선교사이고, 천국 시민이라고 생각하니 그때의 떠올리기 싫은 아픈 기억들이 이제는 귀중한 시간으로 여겨진다. 한국으로 돌아간 친구들을 격려했던 내 편한 마음이 오히려 나를 아프고 부끄럽게 한다.

부부는 20년 넘게 보스턴에서 노숙자 사역을 감당해 왔다. 특히 로마서 12장 말씀을 통해 자신을 배신한 갠단 두목에게 복수하러 가던 자메이칸 노숙자의 마음을 바꾼 이야기가 감명 깊었다.

이 곳 LA는 이제 '천사들의 도시'라는 타이틀 대신 '텐트 시티'라는 별칭이 어울리는 곳이 됐다. 어디를 가도 노숙자 텐트와 쓰레기, 오물이 넘친다.

내가 LANAM쪽 오픈마켓카운터로 쫓기듯 이사를 온 것도 사실 노숙자 문제가 제일 컸다. 내가 살던 LA 아파트 주변에는 20개 남짓의 노숙자 텐트들이 빙 둘러져 있었고, 이들은 매일 새벽 3시나 4시까지 모여 음악을 크게 틀어 놓고 마약 파티를 했다.

어린 아이들 앞에서 훌러덩 속옷을 벗는 남자 노숙자들도 있었다. 한 번은 노숙자가 아파트 바로 옆 가로수에 불을 붙여 입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도 일어났다.

로컬 신문 'LA Times'에 수차례 심층 보도될 정도였고, 평소 봉사활동을 좋아했던 나였지만 그들을 미워하는 감정이 빠르게 자라났다. 그런데 저자 부부는 그런 노숙자들과 함께 있어주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장 중요한 복음 전파를 위해 힘쓰고 있다.

뒤늦게를 아주 세계 맞은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 누구라도 노숙자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역시 나그네, 즉 홀리스일 수 있다. 내가 그들에게선 입견을 갖고 피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전할 수 없다.

물론 심리 상담가나 경찰 등 전문 인력이 필요한 부분이 분명 있겠지만, 크리스천인 우리가 저자 부부와 같은 사역을 조금이라도 나눠 실천한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과라코이에서 힘겨운 이민 생활을 이어온 박성현 교수님의 이야기 가운데 아프셨던 어머니가 며칠 만에 깨어나 "앞으로 엄마 아빠를 부모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고 그분의 인도를 받으라"고 말한 부분이 있다.

한국에 계신 어머니가 떠오르면서 눈물이 툭 떨어졌다. 부모

로서 그런 말을 하기 얼마나 어려웠을까. 아직 아이를 낳아보지 않은 나는 상상조차 되지 않는다. 고작 중학생 나이에 불과했던 박성현 교수님은 어머니로부터 그 말을 듣고 어떤 심정이었을까. 성경 속 요게벳이 떠오르기도 했다.

마음이 아팠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깊은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은 박성현 교수님이 부럽기도 했다. 참으로 이종적인 감정이었다. 그리고 미래의 내 자녀에게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하고 거듭 되물었다.

저자 부부는 배우자 기도, 학업, 경제적인 어려움, 자녀 문제, 팔레스타인 사역 등을 놓고 전심으로 기도하고 전부 기도 응답을 받았다. 물론 기도 응답이 빠를 때도 있고 아주 늦을 때도 있었다.

강원도 산골 소녀였던 나도 미국에 와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의 배우자와 평생을 약속하고, 목회자의 길을 걷는 배울 점 많은 시어머니를 얻었다.

최근에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첫 조카 노아가 태어났다. 무엇보다 그저 업오로만 생각했던 방송이 '방송 선교 사역'이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

작디 작은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음을 고백한다.

앞으로 얼마만큼의 삶이 남아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불평, 불만 없이 감사로 나아가고 싶다.

감사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이 책의 '파트4'에는 훌륭한 팀이 담겨있다. 바로 장현경 사모님의 감사 노트 적기, 'Counting my blessings'다. 하루 5개의 감사 내용을 적는 것인데 내게 정말 필요한 신앙 훈련이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축복을 계수하면서 독후감을 마치고 싶다.

첫째, 미국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둘째, 건강할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로 방송 선교 사역에 동참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넷째, 이토록 귀한 간증집을 읽게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다섯째, 이 책을 통해 변화된 저의 마음을 독후감으로 표현하고 나눌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 국가명 동아시아 X국

▲ 종족명 검은 미아오 종족

▲ 인구 약 200만 명

▲ 종교 대부분 애니미즘, 불교, 천주교, 개신교

▲ 프로젝트 소개 2006년 구약 성경 번역이 시작되어 현 80% 이상이 완성되었고 2020년 완역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동시에 찬송가 편찬과 신약 성경 개정을 함께 진행 중이며 2025년 신구약 합본 완역을 목표로 하고 있다.

▲ 프로젝트 진행 구약은 이미 초고 및 4차 점검이 완료되었고 자문위원 점검만을 남겨두고 있다. 안전 문제로 현 교회에서는 아직 활발히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찬송가를 통해 문해 교육 사역이 진행되고, 번역에 참석하지 않은 교회 지도자의 문해 교육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 ▲ 기도제목 1. 번역된 신구약 성경이 지역 교회에 잘 보급되어 교회 부흥의 밑거름이 되도록 2. 신구약 성경의 완역과 문해교육 사역이 이루어지도록 3. 비자 공급과 안전을 지켜 주시도록

(GBT 성경번역선교회)

Worldwide Church Directory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listing various churches and their contact information. Includes sections for: 감사한인교회, 나성순복음교회, 남가주든단교회, 남가주사리의교회, 대흥장로교회, 디아스포라선교회, 미주양곡교회, 미주평안교회, 복음장로교회, 베델한인교회, 세계사망교회, 세계선교회, 살비지 사랑교회, 열매교회, 엘피스사역원, 은혜한인교회, 주님세운교회, 주님의영광교회, 좋은마음교회, 코너스톤 교회, 토렌스조은교회, 히슬스망교회,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인/터/뷰

다민족사역 펼치고 있는 홍귀표 목사(KAPC 총회장)

“다민족교회가 확산돼야! ... 세계가 하나가 되고 있기 때문”

서북부지역 노회 간담회를 위해 지난 30일 LA를 방문한 홍귀표 목사(KAPC 총회장)를 만났다. 30여년 전부터 다민족을 품고, 다민족교회를 섬기며 사역해 오고 있는 홍귀표 목사. 지나 온 시간을 돌아보면 실수도 많았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의 실수가 새롭게 다민족교회를 꿈꾸는 이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홍귀표 목사에게서 다민족교회의 필요성과 앞으로의 전망을 들어보았다.

△ 펜데믹이라는 새로운 시기를 어떻게 대처해 나가셨는지요?

모든 교회와 목회자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했을 것입니다. 우리 목회의 방향, 교회방향이 다양하게 되어야만 이 시대를 섬길 수 있게 되었죠. 인터넷이 일상화 되어있는 시대를 살며 인터넷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사역해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지요. 그런 상황에서 탁틴 팬데믹 시대에 많은 목회자들이 온라인 사역을 시작하며 인력이나 환경 등으로 엄두가 안났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팬데믹을 경험하며 교회가 문을 닫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방법이 없었지요. 그래서 부족한 상황 속에서 온라인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조금씩 장비를 보강하며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보충할 일이 많지요. 그러나 팬데믹을 통해 많은 교회들이 온라인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를 잡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팬데믹 동안 우리 교회들이 만나게 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 세계가 가까워 졌지요. 전에는 선교지를 1년에 두 차례 정도 방문했지만 지금은 온라인으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같이 말씀을 듣고 성도들이 토론도 하고 피드백도 있습니다. 한층 가까워졌다는 것이지요. 지금은 줌으로 대화하고 현장중계도 하며 선교사와 연결해서 선교사를 성도들이 바라보며 기도제목 나누고 네트워킹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변화된 특권이 아닌가 합니다.

△ 다민족사역이기에 온라인 사역을 할 때 더 어려움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교인 구성원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일단은 영어로 사역하기에 영어로 송출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페인어권 성도들과

중남미 선교지 사역자들을 위해 스페인어도 송출하고 있습니다. 불어나 타 지역 언어구사자에게 어려움이 있었죠. 다민족교회인 우리 교회의 구성원들을 보면 언어권, 문화권, 인종별로 나눌 수 있겠지요. ▲ 문화권으로 보면, 아프리카권, 중동권, 아시아권, 북미권, 중남미권으로 나뉩니다. 유럽인들 (터키, 그리스, 폴란드 등)도 있기는 하는데 전도가 힘들고, 비정규적으로 방문합니다. ▲ 언어권으로 보면 전반적으로는 영어로 사역하지만 두 번째 언어는 스페인어죠. 그 다음으로 불어 사용자가 많습니다. 불어 사용자가 많은 것은 아프리카에 프랑스 식민지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시아권은 필리핀사람들이 많아 타갈로그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영어, 스페인어, 불어, 타갈로그가 주 언어입니다. 나머지는 각 지역 방언입니다. 아프리카 토속어 사용자들을 위해서는 토속어 구사자를 찾아서 통역을 해야 하죠. 그런 경우는 두 세 번을 거쳐 통역이 이루어 집니다. ▲ 인종은 피부색깔로 말하자면 매우 다양합니다. 흑인종, 황인종, 백인종 그리고 그사이 그사이의 거의 모든 피부 색깔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틴루터킹 목사가 인권운동을 할 때 같이했던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앤드류 영 전 아틀란타 시장, 시카고의 제시 켈슨 목사 등이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그들은 킹 목사 사후 무지개연합을 만들었는데 모든 인종을 대변하는 인권운동이었죠. 그들의 모든 인종을 위한 인권운동으로 우리도 덕을 봤는데 실제 그 운동의 핵심 구성원은 모두 흑인입니다. 요즘은 무지개라는 말을 쓰면 동성애를 상징하기 때문에 조심해서 써야하는 말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후에 보여주신 은혜의

상징이며, 흑인 인권 운동가들이 의미하는 바대로 모든 인종들의 유대를 상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희 다민족 사역은 무지개 연합입니다.

△ 캠퍼스 사역을 시작하신 30여년 전, 다민족사역에 대한 개념은 어떤 것이었나요?

그때 다민족사역에 대한 개념이 매우 희미했지요. 그러나 최근 들어 선교 현장에서 다민족 사역에대한 필요가 생겼습니다. 신학교들에서도 다민족 사역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고 해당 책들도 많이 나왔어요.

그 이유는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세계가 매우 가깝게 하나가 되고 있기 때문이죠. 한국 만해도 이제 단일민족이 아닙니다. 40년 전만해도 미8군 주둔 지역이나 특별한 지역에 가야 타인종과 만남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지하철만 타도 세계 각국에서 온 다인종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현재는 100나라 이상에서 온 다른 족속 사람들이 한국에 와 거주 중입니다. 단일민족 시대는 끝났죠. 국제결혼자도 많아요. 오죽하면 '베트남은 한국을 "사돈의 나라"라고 할 정도라고 하네요. 수년 전 대구에 갔을 때 네팔음식을 접했던 적이 있어요. 네팔남편을 둔 한국인 아내가 하는 음식이었었는데 잘되더군요. 미국에 사는 우리들의 LANA 뉴욕은 어떤가요? 뉴욕시와 LA는 백인이 소수인종에 속하지 않았어요? 몇년 전에 위클리프 선교교회에 소속되어 런던에 본부를 두고 유럽에서 30여년 간 사역한 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분이 말하기를 "목사님! 목사님 같은 사역을 저희들도 최근 많이 연구하면서 실행하려고 노력중입니다. 왜냐하면 세계의 많은 대도시들이 다인종으로 구성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런던에 살고 있는 인구의 50%가 영국인이

아니고 다른 인종들입니다." 라고 했어요.

우리는 지금 모든 족속이 이웃이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선교의 정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타문화, 타인종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교다"라고 하는 정의가 대표적입니다. 한 마디로 선교란 다른 나라 현지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현지인을 만나기 위해 하는 소위 "가는 선교"였죠. 그러나 그런 선교는 엄청난 재정적 투자가 필요 했지요. 또한 현지에 가더라도 문화와 언어를 습득하기위해 오랜 시간이 필요했어. 뿐만 아니라 선교사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여려가지 부수적인 지원이 필요했죠. 그래서 지역 교회에서 풀타임 선교사 파송이 쉽지 않았고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이웃이 다민족 상황이라면 당연히 선교는 현지가 아닌 우리가 사는 곳에 서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지로 가서 하는 선교도 지속적으로 계속 해야 하겠지만 우리 이웃도 타인종이기에 선교대상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를 한번 보세요. 한국 사람들의 미국 이민은 70년대와 80년대에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온 사람은 20대 후반 30대 40대들이었습니다. 1.5세대들은 그들의 자녀들이거나 2세대들의 자녀겠지요. 당시에 이민을 온 1세대의 시대는 이제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10년-20년 후를 생각해 보세요. 2세대들이 우리가 남겼던 신앙 자산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아마 소수일 것입니다. 대부분 한인교회들의 20년 후는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유럽의 교회처럼 대형교회 내 소수인원이 모여 예배 드리게 될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요?

요즘 이민을 오는 사람들의 숫자가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오더라도 경제적으로 아쉬



홍귀표 목사

울 것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인만을 대상으로 한 전도는 매우 제한적이지요. 또한 소위 교회의 숫자적 부흥은 수평 이동에서 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한인이민교회의 부흥을 보면 약 20년 전 까지만 해도 불신자들을 전도해서 부흥된 시대였죠. 지금은 부흥회를 해도 별로 모이지 않아요. 앞으로 10년, 많아야 20년 후에 벌어질 상황들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 60대가 젊은 사람들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대안이 무엇이었어요?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 이민 1세대들로 구성된 교회들이 다양한 인종들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열기를 어려워합니다. 교회 밖에서는 다양한 사람들과 살지만 교회에서는 한인 들끼리만 모이지요. 이 땅에서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믿지 않는 영혼들을 전도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현 시대의 상황을 잘 살펴 다른 족속에게도 전도해서 교회를 이루어 나가야 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 앞으로 다민족교회사역 시대가 올 것을 예상해야 하는데 이 사역에 대한 조언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비전과 열정이 있다면 방법은 둘째입니다. 한인1세는 언어가 약하지요. 그러나 아무

리 영어가 안 되어도 몇 마디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한국에서 배운 영어 실력이면 전도는 가능합니다. 짧은 영어로 말하는 것이 어렵긴 하지만 다행히 있던 물맷돌처럼 사용할 수 있지 않겠어요? 특히 목회자들은 기본적으로 석사 학위 소지자들이죠. 영어를 수년간 공부한 분들입니다. 죽기 아니면 살기라고 각오를 하시고 다민족에게 다가가 보세요. 저도 지금까지 사역을 해 오면서 많은 실수가 있었습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다민족 사역 현장에서 경험해온 것들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다민족사역 하고 싶는데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막막해하는 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여전히 부족하지만 다민족 사역의 경험을 나누며 돕고 싶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다민족 사역을 미룰 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직면해 있어요. 함께 고민하며 이 사역을 위해 전진해 가야 할 것입니다. 다민족교회사역의 선두자라고 꼽힐수 있는 홍귀표 목사는 "앞으로 다민족사역을 통해 영혼 구원의 장을 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며 "언제든지 문의 해주시면 성실히 답하겠다"며 회의 장소로 향했다. 다민족사역에 관한 질문은 esfcross@yahoo.com (혹은 전화 773-802-1112, 카톡 아이디: esfcross, Facebook: Timothy Hong)로 하면 된다. <이성자 기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20:31)

읽고 쓰고 마음에 새기는

킹덤성경필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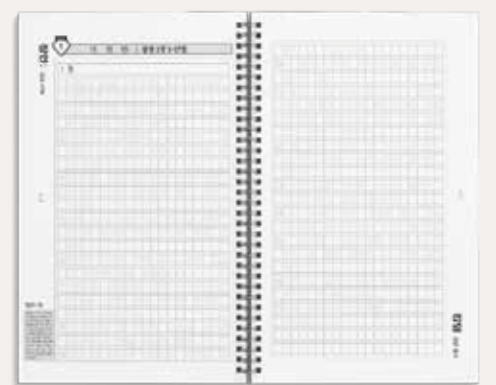
말씀은 시간의 벽을 넘어 우리의 마음을 만져 줍니다. 지친 날들에 은혜를 더해 새 힘을 얻게 하고, 상한 심령을 가만히 안아 줍니다. 말씀을 따라 한 구절 한 구절 쓰다 보면 어느새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참된 평안과 은총을 마주하게 됩니다. 말씀이 주는 축복의 선물을 결코 놓치지 마십시오. 말씀이 생명입니다.



주문안내
개인주문: www.hisfingermall.com
단체주문: info@chpress.net / 718-886-4400



(일반용)



네모 칸마다 흐린 글씨위에 또박또박 바르고 예쁘게 써보세요.



(청소년용)



영어성경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네모 칸마다 흐린 글씨위에 또박또박 한글로 예쁘게 써보세요.